



“내가 한발대 이끌 최고 경영자”... 총장 후보 토론 공방 치열

제2차 공개토론회서 열띤 토론 펼쳐

국립한밭대학교 제8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가 오는 12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제2차 공개토론회가 10일 오후 1시부터 한밭대학교 아트홀에서 5명의 총장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는 상호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한발대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 대학 구성원 2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유병로 교수(기호1), 최병욱 교수(기호2), 김명수 교수(기호3), 이재홍 교수(기호4), 김양순 교수(기호5) 등 5명의 후보자 간에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유병로 교수는 기초 발언에서 “한발대는 학령기 학생 감소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로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일반대 전환 후 특성화 부족으로 정체성이 미흡한 현실”이라며 “제4차 산업 교육 혁신 선도대학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홍 교수는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는 세종시의 거점 국립대 필요성이 높고 있고 있는 만큼 우리 대학이 세종캠퍼스를 확보해 지역밀착형 세종-대덕-대덕 트리아앵글 캠퍼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대전세종연구원, 전국시도발전연구원장협의회 의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위원, 대전교통 회장 등에서 일한 풍부한 정치와 행정경험으로 한발대 학교를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 자시닝 있다”고 말했다.

최병욱 교수는 “우리대학이 10여년 전만해도 내실있는 대학으로 널리 명성을 얻었는데 최근 많이 침체된 것 같다”면서 “4차산업 혁명,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세상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우리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대학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 교수는 “모범적인 특성화 강소대학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한발 서포터(Supporter)기업 100개 유치를 통한 매년 발전기금 25억원 이상을 유치해 우리 대학 교육 및 연구 기반 조성에 투입하겠다”면서 “인사행정 시스템 혁신과 우수학생 유치, 시설 확충, 세종시 융복합 캠퍼스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교수는 “한밭대학교 동문 출신으로 학교의 위기를 좌시하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짜임새 강한 국립 한밭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총장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총장이 된다면 국립 한밭대학교 브랜드 강화와 스마트 트리아앵글 캠퍼스 구축, 인사·복지제도 개선, 최고수준의 교육 연구 환경 조성, 산학협력 강화와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홍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 대학은 산업대학의 차별적 지원에 머물러 있고 일반대학 전환과 함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그동안 쌓아왔던 중앙정부와 대외교섭력을 활용해 차별적 요소를 완전히 해소하고 대학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거점대학을 뛰어넘는 강소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홍 교수는 “총장이 갖추어야 할 최우선의 덕목인 대외교섭력을 통해 정체성 확립과 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학과의 다양성, 학생교육의 다양성, 교수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해 나가겠다”면서 “산학협력은 대학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산학협력의 범위를 대학원과 지역공헌으로 확대해 전 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순 교수는 “우리대학을 산학일체형 대학 혁신 4.0 선도대학으로 이끌고, 기업가적 특성화 모



태대학으로 혁신적 변화의 대학으로 바꾸겠다”면서 “유성덕명캠퍼스-대덕산학융합캠퍼스-세종국제화대학원캠퍼스(가칭)의 중부권 최고의 지역밀착형 밀티캠퍼스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 김 교수는 “대학원 활성화 소동행정 및 시스템화를 통한 행정효율화, 재정확충 다변화와 건전한 재정 시스템, 취·창업 전략 환경 조성, 산학협력 강화와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발대는 4월 12일(목)에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한밭대아트홀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각 후보자들이 소견 발표를 하게 되며, 이후 오후 12시 30분부터 투표가 이뤄진다.

이정복기자



태대학으로 혁신적 변화의 대학으로 바꾸겠다”면서 “유성덕명캠퍼스-대덕산학융합캠퍼스-세종국제화대학원캠퍼스(가칭)의 중부권 최고의 지역밀착형 밀티캠퍼스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 김 교수는 “대학원 활성화 소동행정 및 시스템화를 통한 행정효율화, 재정확충 다변화와 건전한 재정 시스템, 취·창업 전략 환경 조성, 산학협력 강화와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발대는 4월 12일(목)에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한밭대아트홀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각 후보자들이 소견 발표를 하게 되며, 이후 오후 12시 30분부터 투표가 이뤄진다.

이정복기자



태대학으로 혁신적 변화의 대학으로 바꾸겠다”면서 “유성덕명캠퍼스-대덕산학융합캠퍼스-세종국제화대학원캠퍼스(가칭)의 중부권 최고의 지역밀착형 밀티캠퍼스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 김 교수는 “대학원 활성화 소동행정 및 시스템화를 통한 행정효율화, 재정확충 다변화와 건전한 재정 시스템, 취·창업 전략 환경 조성, 산학협력 강화와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발대는 4월 12일(목)에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한밭대아트홀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각 후보자들이 소견 발표를 하게 되며, 이후 오후 12시 30분부터 투표가 이뤄진다.

이정복기자



태대학으로 혁신적 변화의 대학으로 바꾸겠다”면서 “유성덕명캠퍼스-대덕산학융합캠퍼스-세종국제화대학원캠퍼스(가칭)의 중부권 최고의 지역밀착형 밀티캠퍼스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 김 교수는 “대학원 활성화 소동행정 및 시스템화를 통한 행정효율화, 재정확충 다변화와 건전한 재정 시스템, 취·창업 전략 환경 조성, 산학협력 강화와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발대는 4월 12일(목)에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한밭대아트홀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각 후보자들이 소견 발표를 하게 되며, 이후 오후 12시 30분부터 투표가 이뤄진다.

이정복기자



태대학으로 혁신적 변화의 대학으로 바꾸겠다”면서 “유성덕명캠퍼스-대덕산학융합캠퍼스-세종국제화대학원캠퍼스(가칭)의 중부권 최고의 지역밀착형 밀티캠퍼스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 김 교수는 “대학원 활성화 소동행정 및 시스템화를 통한 행정효율화, 재정확충 다변화와 건전한 재정 시스템, 취·창업 전략 환경 조성, 산학협력 강화와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발대는 4월 12일(목)에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한밭대아트홀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각 후보자들이 소견 발표를 하게 되며, 이후 오후 12시 30분부터 투표가 이뤄진다.

이정복기자

“재활용 폐기물 혼란, 국민께 불편끼쳐 송구”

문 대통령 “순환사이클 단계별로 개선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이지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자체 및 수거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또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SRF라

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해야 했는데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윤리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따라서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판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SRF라

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해야 했는데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윤리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따라서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판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SRF라

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해야 했는데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윤리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따라서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판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산 해수담수화 조기착수 힘 모은다

충남도가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의 조기 착수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주기업, 관계기관과 힘을 모은다.

도는 10일 서산 대산산업용수센터에서 입주기업 대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업용수 확보회의’를 열고, 해수담수화 사업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2306억 원을 투입해 1일 10만 톤의 공업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가뭄 해소와 대산임해산업지역의 신규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중앙정부에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지난 4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와 서산시, K-water, 8개 입주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타당성조사의 연내 완료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거쳐 내년 초 건설공사에 착수하면 오는 2021년에는 대산임해산업지역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도는 가뭄이 매년

반복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해수담수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9년도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대산임해산업지역은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만 개별 입지로 조성되다보니 각종 인프라 지원에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수담수화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 입주 기업이 물 걱정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대전형 ‘좋은 일터’ 기업 약속사항 선포

대전광역시와 주최하고 대전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조성사업에 선정된 20개 기업이 노사 간 합의된 약속사항을 시민에게 선포했다.

10일 오후 2시 대전예술의전당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좋은 일터’ 약속사항 선포식은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 이창구 대전경제진흥상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타이어(주), ㈜알에프세미 등 20개 기업 노사대표가 함께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20개 기업 노사대표는 대전의 일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공동선언 및 기업별 세부 약속사항 협약을 채택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시민 앞에 선포했다.

이영호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합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된다는 사실은으로도, 자동차의 안전과 편안에 대한 신뢰를 받고, 두꺼운 엔진을 느끼는 행복한 자동차 여행을 향유하는 것. 그것이 현대파워텍이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HYUNDAI POWERTECH

세종시장 선거전 대진표 윤곽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현 세종시장으로 가장 먼저 후보 확정

세종시장 선거전 대진표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춘희 현 세종시장으로 가장 먼저 후보를 확정하고 한국영양상태에서 음악과 교수를 지냈다.

미래당에서 이종재(63) 전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상대로 마지막 설득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날 세종시장 후보에

송이영(55) 부대변인을 사실상 확정했다. 세종시 조지원읍이 고향인 송 부대변인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한국영양상태에서 음악과 교수를 지냈다.

미래당에서 이종재(63) 전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상대로 마지막 설득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최근

모처에서 그를 만나 출마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재 전 청장은 앞서 지난 1월 29일 세종시장 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 '이런 제복의 보도자료를 내 "세종시장 출마를 고려했지만, 지를 북돋아 기다려 준 아내와 자식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며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이춘희(63)

현 시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참여정부 건설교통부 차관과 초대 행정청장을 지낸 이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세종시장에 당선됐다. 이 시장은 "세종시민과 당원 여러분 지지와 성원 덕분에 공천을 받았다"며 "세종시 미래를 담은 알찬 공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자유한국당 대전 유성구청장 권영진 후보, 탄동주민들 만나 지지 호소 자유한국당 대전 유성구청장 후보인 권영진 후보는 10일 유성구 탄동지역 주민 아모회를 떠나는 주민들을 환송하면서 깨끗하고 젊은 패기를 지니고 유성 토박이인 자신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민간에 맡긴 쓰레기대란, 이제 공공영역 개입해야”

박정현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예비후보는 10일 최근 이수가 된 폐비닐 쓰레기대란 관련, 민간에 맡긴 쓰레기 처리 문제를 이제 공공영역에서 적극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최근 발생한 폐비닐을 비롯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민간에 처리를 맡겨버린 채, 행정은 뒷집지고 있었던 결과”라고 지적하며 “분리수거를 해도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은 물론 공공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장재를 선택할 때 재사용과 재활용, 폐기까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맡긴 쓰레기 처리를 공공이 점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체, “쓰레기행

정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주민, 업체, 행정이 함께 쓰레기 감량을 비롯해 재활용,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예비후보는 “독일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신포장재법’처럼 제품 포장재를 유통하는 기업이 회수와 재사용과 재활용, 폐기까지 책임 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행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재활용 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현기자

이상민 의원, 매머드 2차정책자문단 출범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유성읍)이 지난 11일 1차 정책자문단을 출범한데 이어 대규모 2차정책자문단을 출범, 국가발전과 지역난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본격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이번 2차 ‘이상민 정책자문단’은 정선종 전 정보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병민 카이스트 교수, 고문현 교수(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송지책임재활용제도(EPR)의 재활용 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민을 위한, 대전시민에 의한, 대전시민의 주권시대”를 선포하였고, 9일에는 ‘글로벌 대전, 초광역적 발전계획을 담은 메가시티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번 2차 이상민 정책자문단은 ‘대전시민 주권시대, 글로벌 대전, 메가시티 등 접체된 대전 발전을 혁신하는 정책방안을 개발·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안성호 교수대전대 명예교수,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문재인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등 매머드 1차 정책자문단 100여명을 출범시킨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유성읍)은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정복기자

윤지상 예비후보, 文정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만나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시장다운 시장이 될터”



윤지상 아산시장에비후보가 중앙과 아산을 오가는 광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바닥민심을 잡는 것은 물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확장력을 키워나갈겠다는 생각이 다.

윤 후보는 지난 주, 중앙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김진표 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서 지역에서는 아산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들과 대화를 진행했다.

김진표 의원과 함께한 간담회

에서는 보좌진 등이 참석하여 내실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제 등 여러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방자치에 대해선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맞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하며,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은 아산민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중, 윤 후보가 중앙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

조한 점은 유독 눈길을 끌었다. “도시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치분권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나아가갈 것인지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직장인의 실질적인 애환을 들을 수 있었다. 참석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가족을 위해 앞만보고 달린다”며 퇴직 이후 삶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을 쏟아냈다. 아울러 정년 서운 후보는 “퇴직 이후 창업 등에 대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정책대안을 준비 중”이라며 “중년들의 삶을 시가 일정부분 책임질 수 있는 시장을 펼칠 것이라”고 힘 있게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더민주당 지역 주요 인사 복기왕 지지 선언 나서

강희권 예산·홍성 민주당 지역위원장과김영우 예산군수 후보, 최선경 홍성군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경선 시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각 지역 주요 인사들이 복기왕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의 지지 선언 및 표명을 하고 나서 경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강희권 예산·홍성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김영우 예산군수 예비후보, 최선경 홍성군 예비후보 등 예산·홍성지역 출마예정자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선당후사를 위해 복기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원내 제1당 지위를 위해 천안 병 지역의 재보궐 선거를 막고 충남도지사 후보로는 복기왕 후보를, 양승조 의원은 중앙 정치에서 활약해 선당후사 정신으로 각자 민주당 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른 지역 민주당 인사들의 지지 표명도 잇따라 복기왕 후보가 당내 여론의 우위 분위기를 이어갔다.

지난 3일 행정로 서산시장 예비후보도 자신의 지지그림 밴드에 복기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고, 이병일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의 지지표명과 이정근 보령·서천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의 지지 표명도 연이어졌다.

충남의 체육계에서도 복기왕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선만 전 충남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및 전·현 충남체육회 임원 33인은 2016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아산시 개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유치 등 체육계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진 복기왕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나섰다.

복기왕 캠프는 “인지도를 측정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민주당 당내에선 우리가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관리당원의 의사가 50%가 반영되는 경선에서 유리하다. 그 외 체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기왕 예비후보의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정복기자



대전선관위, 정당업무협의회 개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준비선거를 당부하기 위해 10일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더민주 대전시당, 대전지역 구청장 후보 경선 23~24일 결정

각각 4명씩 공천 신청 동구·중구·유성구·대덕구 등 4곳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오는 23~24일 이후 동안 진행된다.

대상은 후보자가 각각 4명씩 공천 신청한 동구·중구·유성구·대덕구 등 4곳이다. 서구는 장종태 현 구청장 1인 신청지역이라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공직선

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9일 시당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유성·대덕구 등 4곳의 공역의원 면접심사 후 이같이 결정했다.

구청장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투표 50%, 안심투표(선거인단일반국민) ARS투표 50%로 진행된다. 기초단체장 경

선은 2~3인 범위 안에서 치러지는 중앙당 방침에 따라, 후보자 수 입축심사(컷오프)에 반영할 공천 적합도조사(여론조사)도 이번 주 중 실시된다.

대전시당 공관위는 12일(목) 시 당의원, 기초단체장 면접심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안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복기자

박병철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행복채움 10대 공약 발표

대덕구 전지역 무료 공용 와이파이존(Zone) 구축

더불어민주당 박병철 대덕구청장 예비후보가 행복채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발표를 통해 행복채움이란 슬로건이 제시하듯 원도심지역인 대덕구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덕구민의 삶의 행복도를 높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행복채움 10대 공약의 주요내

용을 살펴보면 ▲대덕구 전지역 무료 공용 와이파이 존 구축 ▲오정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정 추진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을 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산후조리원 설치 ▲중·고교생 교육부상 제공 ▲영유아 돌봄 거버넌스 구축 ▲경로당 냉난방비, 부식비 지원확대 ▲찾아가는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 ▲생활문

화동회회 축제개최 등 여가문화 향상 방안 ▲미세먼지, 악취등 환경문제 해결 ▲대덕구청 여성,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 정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박병철 예비후보는 10대 공약외에 부분별 전체공약발표와 선거운동 조직을 공개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오는 14일 오후 7시에 오정동 소재(대덕구 오정동 73-1,3층) 사무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정현기자

자유한국당 이교식, 문화·예술·관광분야 정책공약 발표

세계로 향하는 아산시 문화·예술·관광정책 공약



자유한국당 이교식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8일, 아산인이 만들어 세계로 향하는 아산시 문화·예술·관광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교식 예비후보는 “우리 아산은 온천관광지, 역사 문화자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수도권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이 가능함에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부족, 온천 등 입후보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구·시·군위원회에서도 4월 12일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를 시작으로 시장·군수 등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현기자

관광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어 온천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숙박시설이 많은 아산은 온천을 가족단위 온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가족 관광객과 비즈니스 수요를 유인하는 위탁형 체류시설인 종합리조트로 탈바꿈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보양온천으로 선정된 도고온천은 중앙 4대 유황온천으로 온천건강센터를 설치해 건강의료 온천타운, 웰빙온천타운, 산후조리원등 국민의료보양온천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온양온천은 “온양행궁내의 무예·국궁장, 왕실온천 체험장, 수라간 체험장, 전통공연장, 왕의 집 구지역 주변의 경관 미흡 등으로 온천 이미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성있는 온천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온천특구 주변관광지, 지역축제 및 이벤트와 연계할 경우여가 및

문화관광부 축제로 승격시켜 아산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며, “조선시대 온양행궁에서 행해진 증광발시를 통해 무라시할 재연, 전국승마대회, 더 나아가 세계기사를 축제로 도입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이순신축제중 최고의 대표축제로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아산문화예술의 정책수립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발굴과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한 아산문화재단의 재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술인들의 발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아산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지역 향토 문화, 무형문화재 발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교식 예비후보는 “문화재단, 문예회관, 문화원, 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연결하는 곡교천변 문화벨트를 구축하고 곡교천 고수부지에는 드림경기장, 열기구항공, 플러스스케이트장, 자전거 등 청소년들의 취미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세(勢) 확산에 주력 ‘확장성’ 갖춘 필승카드 부각

박영순 대전시장에비후보 지지세 확산과 대세론 굳히기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세 확산과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 나섰다.

민주당 대전시장후보 1차 경선 여론조사가 11~13일 예정된 가운데 박 후보는 1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팬클럽 지지모임을 잇달

아 갖는 등 세(勢) 확산에 주력해 ‘확장성’을 갖춘 필승카드론 전략을 펼친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시민복토단과 지지자, 당원·시민이 함께해 ‘힘 있는 시장, 당당한 대전’에 대한 박 후보의 시장철학과 대전발전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오후 7시에는 박 후보 팬클럽인 ‘이순위 사랑’ 회원 50여명이 지지모임을 갖는 등 ‘박영순 대세론’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지난 27일 출마자자회견 이후 보름이라는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박 후보를 향한 바닥민심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정복기자

“산학일체형 대학혁신 4.0 선도대학 만드는데 노력할 터”

국립한밭대학교 총장 후보 김양순 교수

<영어영문학과>

오는 4월 12일 국립한밭대학교 총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예전에 비해 후보들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앞으로 향후 4년간 한밭대학교를 이끌어갈 총장을 선출하는 선거이기에 학내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전투데이는 국립한밭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5명의 후보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서면 인터뷰 질문지는 공통으로 전달됐고, 답변이 도착한 순서대로 게재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총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변화를 기회로 시작으로 바꿀 수 있는 신뢰와 혁신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조직의 성패는 명확한 미래 비전과 강한 추진력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볼 수 있는 제한으로 교육 행정기를 넘어서는 기업가적 마인드의 경영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탄탄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와 풍부한 교육·연구·사회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학일체형 대학혁신 선도대학으로 도약하는 한밭대학교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고 실천하는 지성과 헌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 변화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의지로 총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한밭대학교는 지난해 개교 9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선언했는데요. 총장 후보로서 향후 한밭대학교의 마스터플랜은
혁신은 지속가능한(Sustainable) 성장발전을 전제로 합니다. 추격대학이 아닌 선도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하여 한밭대의 100년을 넘어서는 지속 가능한 비전을 ‘산학일체형 대학혁신 4.0 선도대학’에 두겠습니다. 산학협력에 뿌리를 둔 태생적 DNA를 잘 키우고 산학협력의 기반을 더욱 고도화시켜 “산학일체형 대학혁신” 관점에서 세계적 수준의 최고의 대학이 되고 대학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펀포드의 산학연모델과 실리콘밸리처럼 한밭대의 산학일체형 모델과 대덕산학융합밸리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외연확장을 통한 지속적 성장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성덕명캠퍼스-대덕산학융합캠퍼스-세종국제화대학원캠퍼스(가칭)’의 중부권 최고의 지역밀착형 멀티캠퍼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대전에서 세종으로, 세종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한밭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대학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대학정원이 고졸자보다 많아지는 입학절벽이 2020년 바로 코앞입니다. 2021학년도 고졸자 대비 대입정원 비율은 대전(1.86)이 경북(1.88)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제는 취업률보다도 입학충원율이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 대전지역 학생들의 자원만으로는 우수한 자원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

라 국내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해외의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학교의 브랜드 가치와 입학충원율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산학일체형 대학혁신 4.0 선도대학’의 비전(what)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S-)TEAMS의 5대 핵심전략(how)과 25개 세부 실천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대학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학의 비전을 “산학일체형 대학혁신 4.0 선도대학”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Top 10, 글로벌 Top 100’에 이르는 세계적 수준의 산학일체형 특성화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기업가적 특성화 모델 대학을 구축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혁신인재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S-)TEAMS 5대 핵심전략과 25개 세부 실천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유성덕명캠퍼스와 대덕산학융합캠퍼스 그리고 세종국제화대학원캠퍼스를 트라이앵글로 잇는 지역 밀착형 멀티캠퍼스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Sustainable) 성장발전을 촉진(S)으로 하는 TEAMS(기술기반 산학혁신(T), 교육혁신(E), 융복합 연구혁신(M), 행정·소통혁신(A)과 창업혁신(S))의 5대 핵심 전략을 활용하겠습니다

▲세종시로의 이전에 대한 소견은.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공헌해야하는 것은 대학의 큰 사명입니다. 대학이 주변에 어떤 도시와 어떤 지자체를 갖고 있는가의 인프라는 대학발전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유성덕명캠퍼스-대덕산학융합캠퍼스-세종국제화대학원캠퍼스(가칭)’의 중부권 최고의 지역밀착형 멀티캠퍼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세계로 발전하는 산학일체형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 행정수도인 세종에 국제화대학원을 구축하여 세계 각 지역의 15개 이상의 대학을 유치하여 연합대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성-대덕-세종’을 잇는 멀티캠퍼스를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립대 통합할 문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밭대도 인건에 위치한 충남



대와 공주대와 통합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국립대와의 통합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립대학교간의 통합은 물리적 통합과 함께 화학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가능한 문제로

인근 국립대와의 통합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밭대는 그동안 이공계 중심 대학으로 운영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이에 걸맞는 학과 신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학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야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는 대학 4.0시대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걸맞는 대학원의 전공신설 또는 기존학과와의 교육과정개편, 다중전공 강화, 나노디그리 과정 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수요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들의 연구개발 환경 증진과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은.

연구몰입환경 조성과 융복합 연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평가 및 보상(인센티브) 체계 고도화, 융·복합 산학연구 활성화, 연구인프라 구축, 연구실현실 환경개선, 연구와 행정 분리, 대학원 활성화와 수요중심전공신설 등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혁신의 세부전략으로 창의형, 융합형, 산학형의 교육과정개편, 맞춤형 교육, 자기주도형 학습환경과 창의 융합형 혁신인재 교육확산(PBL/TBL/Flipped Learning 학습법, 캡스톤 디자인, 실용교육), 기업연계형 현장실습 교육, 융복합 교육, 글로벌 교육, 사회수요에 기초한 적시성 교육, 연합대학 플랫폼과 복수학위제도 확대, 학생설계융합혁신전공 등 전공선택제 학사구조 강화, 다중전공 이수학생 성과장학금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교육 철학은.
불분명한 미래에 과감히 맞설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라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도전과 실천하는 지성을 강조합니다. 수업은 끊임없는 열정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학생의 양방향 소통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따뜻한 코치가 되려고 합니다.

▲한밭대는 여러 학제 개편과 교명개정을 통해 동문회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데요. 향후 총장이 되신다면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한밭대는 1927년 개교 이래 90년 동안 7만 8천 명의 동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11번의 학교 명칭이 바뀌었지만 교명이 바뀌었다고 학교의 뿌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문 발굴 정보를 지원하는 모바일 동문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문을 찾아내고 대학이 동문들과 상호 호혜적으로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저변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밭대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역과 중앙, 더 나아가 해외 아우르는 누구보다도 탄탄한 산·학·연·관 인적 네트워크와 풍부한 대외협력·행정, 사회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산학일체형 대학혁신 4.0 선도대학, 기업가적 특성화 모델대학,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한밭대학교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혁신에 실천하는 헌신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이정복 기자

한글타이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가장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

빠르게 달리는 기술에서 안전하게 달리는 기술까지 Hankook은 수많은 첨단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기술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고 만들어지는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친환경 Hankook은 환경을 지키는 일과 편안한 운전 환경을 위하여 자연과 영감을 배우고 있습니다.

enfiren
압프랑 효과란? Hankook enfiren은 압프랑 효과를 극대화하여 운전의 즐거움과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HANKOOK
Hankook Tire Co., Ltd.

● 특 ● 정 ●

상반기 교습소운영자연수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1일 오전 10시 평송초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리는 '2018년 상반기 교습소 운영자 연수'에 참석.

상반기 교습소운영자연수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11일 오전 10시 30분 평송초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리는 2018년도 상반기 교습소 운영자연수에 참석.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한현택 동구청장= 11일 오후 2시 12층 대강당(공연장에서 지역민 방위대장 교육을 실시.

사업 현장방문



박용감 중구청장= 11일 오전 11시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 현장을 방문.

축제추진위원회



장종태 서구청장= 11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석.

문화예술프로그램 개강식



박수범 대덕구청장= 11일 오후 2시 대덕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리는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 개강식에 참석.

제227회 구의회 제2차 본회의



이원구 유성구청장 권한대행= 11일 오전 11시 유성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27회 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대전-강원 바이오헬스케어산업 해외시장 개척 발판 마련

“미래 먹거리, 바이오산업 성장될 것”

대전광역시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2개 기관이 바이오헬스케어산업분야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은 지역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시·도간 연계 가능한 기업군간 협력 사업을 구성·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및 기업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한다.

이번 선정과제는 대전-강원지역 소재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올 12월까지 9개월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강원기술지주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4억 원의 국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강원-대전권 성장유망 바이오기업

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대전지역 바이오산업분야 잠재력 바이오 진단 및 가능성 소재 기업들은 강원 의료기기 산업과 연계해 한층 강화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선정기관들은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기술사업화와 해외 시장진출을 효과적으로 증대함으로써 관련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입성과를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



서구 '월평도서관 건립공사' 기공식 가져

내년 8월 준공... '책과 숲 어우러진 서구 랜드마크기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월평도서관 건립공사가 10일 첫 삽을 떴다.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0일 갈마동 820번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장종태 서구청장을 비롯해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평도서관 건립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 월평도서관 건립공사는 국비 39억 2000만 원, 시비 29억 4000만 원, 구비 29억 4000만 원 등 총 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3,584.7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지상 1층에는 유아 및 어린이자료실, 지상 2층은 도서정보

실, 지상 3층에는 문화행사실, 시청각실이 들어선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준공 이후 책과 숲이 어우러진 서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관용 기자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수거검사 실시

중구, 70개소 대상 지도점검·수거검사·홍보 실시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감은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 날씨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

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식품위생담당 직원으로 2개조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9일부터 공공기관, 산업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병원 등 13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

점검반은 ▲무허가 식품원료 사용 여부 ▲식재료 보관 적정성 ▲갈·도마·행주의 구분사용 ▲조리기구의 세척방법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실태 ▲남은음식 재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지도점검과 함께 오는 13일까지 식중독발생에 취약한 어린이 대상 급식소 등 70개소의 갈, 도마, 행주 등을 수거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위생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예방활동 홍보물을 배부하고 조리 종사자의 개인 위생과 식재료 관리, 작업과정 및 시설설비 관리 등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 자칫 방심하여 음식물 등을 적정관리하지 못하면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각 가정은 물론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는 청결유지 등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市 '먼저보유 명소탐방' 프로그램 운영

4가지 코스로 12월까지 운영... 외래 관광객 유치

대전시는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전만의 특색 있는 문텐츠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된 '먼저보유 명소탐방' 관광프로그램을 이달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보유 명소탐방은 4가지 코스로 12월까지 운영되며, 첫째 주는 문화향기투어로 이응노미술관, 한밭수목원 등 문화예술단지과 대전시민전문대를 방문하고, 둘째 주는 조물방 만들기 체험 및 유성운천 족욕 체험장을 방문하는 당일코스다.

둘째 주는 대청호투어로 대청호오백리길, 도자기 만들기(체험),

동충당, 응봉정이 스키야드, 구.충남도청(근대역사탐방) 코스며, 셋째 주는 힐링 투어로 뿌리공원(족보박물관, 한지부채 만들기(체험), 장태산 자연휴양림, 유성운천 족욕 체험장) 코스다.

넷째 주는 건강투어로 계족산 활달길 맨발걷기, 종리재래시장, 캘리디자인배우기(체험), 카이스트, 화백박물관 등(대덕연구단지 탐방)를 경험하는 코스로 각각 진행된다.

전문 가이드의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먼저보유 명소탐방은 수도권 등 외래 관광객에게 지역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려 대전을 관광목적지로 찾을 수 있도록 유도

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신청은 운영주관사인 토토투어 홈페이지 및 전화(042-252-7725)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7500원으로 예약 신청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에 운영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먼저보유 명소탐방을 통해 대전의 명소와 맛집 등을 널리 알려 대전의 관광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탐방투어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선호도를 반영하여 코스 및 프로그램 등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유성온천축제 주민설명회 가져

대전 유성구는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및 구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2018 유성온천축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온천축제 주민설명회는 축제에 대한 사전 홍보는 물론,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여 성공적인 주민참여형 축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행사는 퓨전가야금병창 그룹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대행사의 축제배치도 및 세부프로그램 설명, 주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원구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은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7일 축제 추진상황 1차 보고회, 5월 3일 주요프로그램 현장점검, 5월 9일 2차 보고회 및 현장점검을 통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관용 기자

도심 속 공동체텃밭 주인을 모집합니다

市,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 활용 도농상생 발전 이바지

대전광역시 11일부터 공동체 텃밭 개념으로 조성한 공영도시농업농장(유성구 북용동 578번지·이하 '공동체텃밭')의 분양신청을 받는다.

공동체텃밭 사업은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활용해 도농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임시개소를 통해 운영해오다가 이날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공동체텃밭의 분양 신청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개인분양은 물론 다자녀, 다문화 및 각종단체로 구분해 접수가 가능하다.

분양신청은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 'OK 예약서

비스'를 통해 하면 되고, 분양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소정의 분양료(209원/㎡)를 납부해야 하며, 오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공동체텃밭을 통해 도시농업을 체험하게 된다.

대전시 인척노 농생명산업과장은 "공동체텃밭은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면 좋겠다"며 "도농상생과 주민공동체의 가치를 높이는 지역 거점공공건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공동체텃밭 분양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 13055번) 또는 대전시 농생명산업과(042-270-3975)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호 기자

FTA 무역구제제도 설명회

대전상의 FTA활용지원센터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성욱) FTA활용지원센터는 10일 오후 2시 상의회관 회의실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교육 및 무역구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유영용 관세사(관세법인 네오)가 강사로 나서 한-미, 아세안, EU 등의 FTA원산지 검증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위원이 사무관이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반덤핑 조사사례, 무역구제 신청방법 등 활용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송병배 기자



서대전농협 화요직거래장터 개장

서대전농협(조합장 최시규)은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서대전농협 본점 주차장에서 '서대전농협 화요장터'를 운영한다.

장터에는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채소, 과일, 특육작물 등 수산물 가지의 지역 농산물이 판매되며,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서대전농협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터에는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채소, 과일, 특육작물 등 수산물 가지의 지역 농산물이 판매되며,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서대전농협은 우리

송병배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2019년도 신서천화력 특별지원사업 신청

서천군, 장별 활력 동네 마실방 건립사업'등 10개 사업 113억 원 규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장별 활력 동네마실방 건립사업 등 10개 사업 총 113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신서천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을 지난달 말 한국전력 기반센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내역은 서천군 전략발전 사업으로 ▲서천읍 외곽도로 확장공사 ▲봄의마을 주변 재정비사업 ▲서면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홍원항 관광객 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총 69억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인 서면 사업으로 ▲장별 활력 동네 마실방 건립사업 ▲상하촌 정겨운 동네마실방사업 ▲서천화력 폐선로 활용 주민복합문화 재생사업 ▲춘장대 해수욕장 주변 관광객 주차장 조성사업 ▲오치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춘장대 해수욕장 해양체험파크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총 44억 원이며 이번에 신청한 2019년도 사업비는 전체 특별지원 사업비 320억 원 중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은 특별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2016년 5월부터 주민설명회, 간담회, 우수사례 민간협동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각 마을별 지원사업과 대규모 소득사업을 병행추진하기로 지역에서 합의함으로써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이후 충남연구원과 합동으로 20여 차례의 현장컨설팅을 거쳐 마을별 특화사업을 발굴해 2019년 사업을 확정하고 지난 3월 주민설명회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쉼터·독거노인 공동생활공간을 결합한 복합공간인 동네마실방 건립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아울러 서천군의 대표관광지인 춘장대해수욕장 활성화



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주를 이룬다. 특히 동네 마실방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과 더불어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급식과 주거를 해결하는 공동생활 홈 개념의 복합시설로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32%인 서천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고독사, 노인복지 사각지대 등을 해결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춘장대해수욕장에 도입되는 익스트림타워는 국내최초로 도입되는 시설로써 번지점프, 전망대, 스카이워크, 빅스윙, 암벽등반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놀이시설로 침체된 춘장대해수욕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정환 투자유치과장은 "향후 산업융합지원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부처에 충분한 사업설명 등을 통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직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올 10월까지 전문가와 함께 해당마을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추진하여 마을특화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환 투자유치과장은 "향후 산업융합지원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부처에 충분한 사업설명 등을 통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직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올 10월까지 전문가와 함께 해당마을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추진하여 마을특화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환 투자유치과장은 "향후 산업융합지원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부처에 충분한 사업설명 등을 통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직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올 10월까지 전문가와 함께 해당마을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추진하여 마을특화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환 투자유치과장은 "향후 산업융합지원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부처에 충분한 사업설명 등을 통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직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올 10월까지 전문가와 함께 해당마을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추진하여 마을특화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 주민 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선정

충남 홍성군은 금마면 마시마을이 충청남도의 2018년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사업 대상마을로 최종 선정됐다.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을 범도민적으로 확산하고 3농혁신과 연계한 주민 주도적 실천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향후 마시마을이장 박원기(은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7,500만원을 지원받아, 마을회관에 15K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전 가정(75가구)을 대상으로 LED전등과 절전형 멀티탭·수도꼭지로 교체하고 태양열 전등을 설치해 생활 속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할 계획이며, 각종 체험활동 및 주민교육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통해 홍성군의 모든 마을에 에너지 절감 및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정현기자

중앙부처 방문 정부예산 확보 '총력'

청양군, 2019년 주요 신규사업 4건·15억 지원 건의

청양군이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준배 청양군수 권한대행 10일 정부세종청사 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주요 신규사업 4건(총사업비 506억원)에 대해 내년도 국비 15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사업은 ▲농소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원(총사업비 205억원) ▲충청유교문화원 광역관광개발(선비총의 문화관 조성 사업) 3억원(총사업비 111.2억원) ▲청장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원(총사업비 23억원) ▲청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억원(총사업비 167억원) 등이다.

이 자리에서 강준배 권한대행은 "제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정부예산 확보가 필수"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예산의 적극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 2월 군수 주재로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발굴 보고회, 3월·4월 정부예산 확보활동 간담회 등 정부예산 산별성숙기에 맞춰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구 국회의원, 출향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제조원가는 상승돼도 납품단가 인상된 업체 감소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7곳·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 예상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3월에 걸쳐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제조업체 중 2017년 제조원가가 상승했다는 업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납품단가가 인상됐다는 업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53.0%, 51.8%, 35.3%로 지난해 52.7%, 56.7%, 35.7%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납품단가가 인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16.3%, 13.1%, 9.5%로 지난해 23.0%, 25.0%, 12.3%보다 2.8%p~11.9%p 감소해 중소기업에 가해지는 원가부담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중은 각각 56.6%, 27.0%, 16.5%이었으며, '섬유/의류(33.2%)', '조선(30.2%)' 업종의 노무비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단가인하를 경

험한 업체는 지난해 14.3%보다 소폭 감소한 12.1%로 조사됐지만, '섬유/의류' 업종의 경우 평균보다 약 2배 높은 21.6%로 나타나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행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는 방법은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34.4%)'와 '추가 발주를 전제로 단가를 인하(23.0%)'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중소기업에 10곳 중 7곳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 중 제조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7.2%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인상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자발적 인식변화'를 통한 공정 원가 인정 문화 확산(48.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송병배기자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본격 추진

공주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5년간 54억원 투입



공주시시정 오시덕은 지난 9일 사곡면사무소에서 추진위원 및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4억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으로는 사곡면 주민문화·복지시설을 위한 공간인 복지회관 신축, 공동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조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이다.

또한, 노후 중심지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돌레길 조성(보행공간 조성, 쉼터, 꽃길조성등), 농업폐기물 수집장비를 조성하는 등 사곡면의 낙후된 면소재지 개발을 통해 고유의 테마가 살아있는 농촌 발전 거점으로써의 중심지 기능회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일환 농촌진흥과장은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식약청 '2018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관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을 충남·세종(11일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충북(20일 청풍명월한우판매장), 대전(25일 대전식약청에서 총 3회

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사항, 축산물 위생감시 및 표시기준, 위생관련 세부 규정 및 감시지침 등이 진행된다.

이 관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전문성과 감시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상생의 건설문화 위한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 발족

계약제도와 관행 전면 혁신으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실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 철폐와 사회적 가치 반영 등을 통한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10일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했다.

개선될 계약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또는 수급업체와 하수급업체 간에 발생하는 계약관련 분쟁에 대해 각 사안별로 책임주체와 보상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문화해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안을 마련한다.

김상균 이사장은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 발족으로 공단, 수급업체 그리고 하수급업체 모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 속에서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균 이사장과 공단 임·직원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이틀간 협력사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개선과제를 선정,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약 제도를 개선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롯데백 신발에도 봄 스티커즈 제안

블랙마틴시봉 컬래버레이션 진행

롯데백화점은 대전점점장 손윤경이 오는 15일까지 봄 정기세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가벼워진 옷차림에 잘 어울리고 편안함까지 갖춘 다양한 '봄 스티커즈'를 선보여 고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층 영패션매장에서는 롯데백화점과 블랙 마틴 시봉의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스티커즈 6종을 선보이고 있다.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더한 '니트 스티커즈'와 발등부분 밴딩으로 발걸음이 더욱 편안한 '밴딩 슬림' 스타일을 각 9만9000원에 판매하는 등 봄 슈즈 대표 아이템을 제안한다. 스페셜 이벤트로 구매고객에게 양말을 선착순으로 증정하고, 컬래버레이션 스티커즈 2켤레 구매시에는 5% 추가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층 구두코너에서도 15일까지 '스타일리쉬 스티커즈 상품전'이 진행되어, 스티유, 핏플랩, 슈랩 등이 인기 스티커즈를 제안하고, '슈펜 스티커즈 1만원 제안' 행사에서는 마카롱 스티커즈와 크레용 스티커즈를 각 1만원에 판매한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무논점과 직파 기술 교육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는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직파제비 희망농업인 60여명을 대상으로 직파제비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철분코팅 무논점과 제비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직파제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철분코팅은 종자 산화를 통한 조류피해 최소화와 물 관리 효율성을 위해 직파제비에 제비 중요한 것으로 볍씨 20kg에 철분과 소석고 혼합 115kg을 0.5mm로 볍씨를 철코팅 할 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실험되어 농가에서도 이를 준수하여 줄 것 과 직파에서 나타나는 잡초와 앵미 방제 요령, 목관리, 볍씨소독, 적정주수 파종의 중요성 등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서광원 기술보급과장은 "3차(씨) 재배면적, 집소비도 시용량, 생산비를 줄이기) 3고(밥) 맛은 좋게, 완전히 비료를 높이고, 쌀 소비를 늘리자) 운동에도 농업인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쌀 관세화 및 농촌고령화로 인한 벼농사의 위기를 직시한 농업인들 사이에서 직파제비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실천 방안으로 생력화와 경영비 절감 기술보급 예산 1억5천만 원을 투입해 직파기, 철분코팅기, 드론 등 생력화 농기계를 보급하고 마을단위로 벼 철분코팅 무논점과 제비단지를 조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시 여성회관 맞춤형 취업상담 실시

아산시 여성회관(관장 권순미)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2018년도 제1차 '취업연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여성회관이 수강생 및 시민들을 위해 취업지원 기관인 아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으로 실시하는 취업연계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아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상담과 진로결정 심층상담, 취업지원 및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및 내일배

움카드 등 취업과 관련된 사업 안내를 실시한다. 여성회관은 17개 기능·기술 강좌와 8개 전문자격증 교육 후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연계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 및 방문으로 예약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여성회관 홈페이지(http://woman.asa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여성회관(041-536-8487)으로 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백석대·백석문화대 교직원·학생회

인근 상가번영회와 '클린문화 캠페인'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백석문화대학교는 10일 교직원들, 양 대학 총학생회, 대학인근 상가 번영회와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클린문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클린문화 캠페인은 대학 캠퍼스는 물론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재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학 앞 상가, 원룸촌을 청소하는 캠페인으로 양 대학의 오랜

전통이다. 특별히 이날 클린문화 캠페인은 봄을 맞아 양 대학 교직원, 대학 인근 상가번영회가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처음에는 대학 교직원들과 양 대학 총학생회가 행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소식을 듣고 상가번영회가 좋은 일을 함께하자고 제안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로 진행됐다.

천안=이풍호기자

대덕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여성친화도시조성 추진상황 공유와 사업 발전방안 논의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1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공무원, 구 의원, 학계, 여성·도시·안전·문화 분야 전문가, 구민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이 그동안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1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공무원, 구 의원, 학계, 여성·도시·안전·문화 분야 전문가, 구민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이 그동안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화폐박물관, 사진전 '꽃과 풍경'

대전지역 사진 동호회 '사인회(寫人會)' 봄날 풍경 담은 작품



한국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대전 유성구 소재는 10일부터 22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꽃과 풍경' 사진전을 개최한다.

(寫人會)의 작가 박장규, 송동섭, 송병영, 유경실, 유성준 등 5인이 참여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나와 꽃망울을 피워내는 위대한 생명의 힘과,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응축한 봄날 풍경을 담은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이강원 차장은 "겨우내 움추린 산과 들이 가지개를 켜는 희망의 계절을 맞아 꽃이 있는 봄날 풍경 사진들을 통해 찬란한 봄날의 여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충남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교육복지지원 '최우수' 대학 선정

충남대가 전국 422개 대학 캠퍼스에 대한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국립특수교육원이 4월 10일,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충남대는 전국 348개 대학, 422개 캠퍼스 중에서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최우수(90점 이상) 대학은 33개 캠퍼스로 전체 7.8%에 불과하다.

충남대는 평가가 시작된 이후 2011년, 2014년, 2017년 3주기에

걸쳐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각 대학이 제출한 ▲선발 ▲교수회 ▲시설 설비 등 3개 영역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 종합평가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충남대는 평가분야 선발, 교수 학습, 시설 설비 등 3개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장애정도에 맞는 맞춤형 교수 학습 지원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정복기자

올해 봄 가뭄 없을 듯...충남은 주의 단계

4~6월 강수량 평년과 비슷 전망...용수부족 많이 해소 예상

정부는 지난 3월 평년보다 많은 강수로 전국 저수율이 평년과 근접하게 상승하는 등 가뭄상황이 완화되고 있어 5~6월 모내기철에는 물 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4~6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용수부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운문댐·밀양댐을 수원으로 하는 일부 남부지역의 저수율이 낮아 생활·공업용수 부족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분야별 가뭄 예·경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용수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의 97% 수준으로, 토양수분도 양호하여 봄철 농업기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공업용수는 전국 다목적댐의 저수율이 예년의 105% 수준이지만, 남부지역 일부는 댐 저수율이 낮게 유지되고, 전

북지역의 저수율도 다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운문댐·밀양댐 등 저수율이 낮은 수원(水源)을 이용하는 대구·경남·경북의 7개 시·군은 '심각 단계', 광주·충남·전남의 18개 시·군은 '주의 단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주 정부합동 TF(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분야별(농업·생활·공업) 가뭄실태와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매일 가뭄정보를 통합한 가뭄 예·경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극심했던 속초·신안 등 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5억 원을 지원하여 용수 부족에 따른 긴급조치를 추진하였다. '상습가뭄해제지구'를 '자연

해제대책별 시행령'의 자연재해개선지구 6개 유형에 추가하여 상습적 가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46개소(926만 톤)에 물채우기를 완료하였고, 목표량을 128개소(2594만 톤)로 상향조정하여 추가적인 용수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뭄대책용 시설·장비를 일제 점검·장비하여 가뭄발생 시 즉시 가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댐에서 필요한 용수를 정상 공급하면서 가뭄에 대비해 단계별 긴급운영과 대체공급 등을 확대하는 등 댐 저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령·밀양·주요댐은 하천유지유량을 통해 용수부족에 대비하고 있으며, 운문댐*은 금호강 물을 취수하여

공급하는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중 신안군이 여전히 비상급수 중이며, 비상급수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매주 점검(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가뭄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생활용수 불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에서는 용수 사용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영농기를 맞아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비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도 일상에 물 절약 생활화하고, 물 부족에 대비한 감량하고 인근 수원과 연계운영을 통해 용수부족에 대비하고 있으며, 운문댐*은 금호강 물을 취수하여

김태성기자

신림범죄전담조직

'신림사범수사팀' 신설

신림청(청장 김재현)은 매년 증가 추세인 산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산림범죄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북부지방산림청에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3천여 건의 산림관련 불법 사건이 발생하는 추세이나 사법전담부서와 인력부족으로 수사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산림사범수사팀 신설로 산림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사범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팀은 오는 11일 발족식을 갖는다.

이 조직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부 등 북부지방청 관내 산림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산림관련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 기획수사를 발의 예정이다.

박봉관기자

공주시, 올해의 책 선포식 및 황선미 작가 강연회 개최

고작해야 364일과 언어의 온도... 다양한 연계행사 진행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오는 14일 시립도서관 강북관 문화센터에서 범시민 독서운동 '한 도시 한 책 읽기' 2018년 올해의 책 선포식 및 황선미 작가 강연회를 개최한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은 지역 주민이 한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호이해를 도모하자는 취지의 독서운동으로 올해 대표도서로는 도서선정위원회의와 온·오프라인 시민투표 등을 거쳐 '고작해

야 364일(황선미, 포북차일드)'과 '언어의 온도(이기주, 말글터)'가 선정됐다.

선포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충남연정국악원의 흥겨운 북공연과 함께 시작되는 1부에서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취지 및 올해의 책 선정경과보고, 대표도서 선포 등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대표도서 '고작해야 364일'의 저자 황선미 작가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고작해야 364일'은 '마당을 나온 암탉', '나쁜 어린이표'로 '2014 런던도서전 오늘의 작가'로 선정된 황선미 작가의 작품으로 어리광쟁이인 철부지 '명조'가 가족을 통해, 친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깨우쳐 가는 동화이다.

선포식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대표도서 '고작해야 364일'과 '언어의 온도'를 참석자들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하며, 이후 공감토크 텔레미 및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등의 연계행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공주=정성범기자

당진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지난해 추진한 연차별 사업 시행결과 심의

당진시는 10일 오후 4시 당진시청 해나무 홀에서 2018년도 제1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제7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신기원 민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32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해 심의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아름다운 변화 공감박지 당진'이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별 추진전략과 21개 중점 추진사업 및 5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이 추진됐다.

이 중 복지사업 소요재원 전액을 자치단체가 총담하는 사회복지관 신설과 남부권 광역보건센터 운영, 민생안정지원 확대 같은 지역특화사업의 예산액이 전체 시행계획 중 약 5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생애주기별 돌봄 강화, 사회서비스 영역 확대에 따른 취·창업 지원 및 주거안

정 관련 사업도 활발히 추진됐다.

특히 10일 회의에서는 당진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한 '위드 스마일(With Smile) 공모사업 확대'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워킹맘 워킹대디' 사업을 지역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범시민적 유희환경 감시기구 운영'은 민·관 협력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이디어팩토리 리모델링 가상현실 VR룸 설치

한밭대학교, 창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10일 오전 11시 30분 대학내 N3동 전기전자관에서 '아이디어팩토리 리모델링 및 VR(가상현실)룸 개소식'을 개최했다.

아이디어팩토리는 한밭대 IT 융합인력양성사업단(단장 박현주 교수)에서 학생들이 3D프린터, 레이저커터, PC 등 다양한 작품제작·실습장비를 활용해 수

업시간에 배운 IT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고 시제품을 제작해볼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한밭대는 이곳을 리모델링해 장비를 재배치하고 3D프린팅룸을 마련했으며, 새롭게 VR룸을 설치했다.

특히 VR룸은 "RC(Radio Control)활용교육 프로그램"의

인한으로 추진된 것으로 가상현실 실습장비를 구비해 프로그램 코딩 등을 통한 가상현실 구현기술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한밭대는 이 VR룸을 활용해 IT산업과 기존 교과목을 연계한 프로그래밍 학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캡스톤디자인, 작품제작 등 여러방면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밭대 박현주 IT융합인력양성사업단장은 "우리 대학은 대전지역 유일의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으로서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만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IT를 바탕으로 하는 VR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정복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한서대학교, 인도네시아 파누트 물요노 총장

가자마다 대학총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에 위치한 한서대(총장 함기신)는 10일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파누트 물요노(Panut Mulyono) 총장에게 명예교육박사학위를 수여했다. 한서대 연암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는 함기신 총장을 비롯한 한서대 교직원과 학생, 가자마다대학교 파리푸르마 포에르우코(Panipuma Poerwoko)부총장과 보직교수 2명, 주한인도네시아 마르하디(Umer Hadi)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960년생인 물요노 총장은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화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공업대학(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2년 가자마다대학교 공과대학장을 거쳐 지난해 총장으로 부임했다. 사회에 대한 봉사는 대학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임을 강조하는 물요노 총장은 인도네시아 오지마을의 친 환경적 개발을 위해 안전한 식수의 확보, 조림사업, 유기농비료와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 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쳐왔다.

함기신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가자마다대학교와 한서대학교는 13년째 봉사활동 및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형제와 같은 학교"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41001-4102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정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사망 등의 개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무연고 사망 등의 개리 공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를 개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주소	비고
양두준	1971. 3. 6. (남)	충북 옥천군 정산면 장위리 29의 12	충남 서천군 미서면 송산리 614-2	

2. 사망 관련내용
가. 사망일시 : 2018. 2. 26. 20:00경 추경 (발견일시 2018. 3. 13. 15:43)
나. 발견장소 : 대전 동구 동부로 10 (가양동)
(대전 동구 성남동 소재 대전한국병원 영안실 인치)

다. 사망원인 : 미상
라. 기타사항
○ 대전동부경찰서 범죄사정처리 의뢰에 따라 연고자 확인 결과
- 사망자는 미혼이며, 부모 사망, 4형제 중 2명은 미혼으로 사망,
1명은 가족관계등록부만 등재되어 있고 주민전산은 없음

3. 처리내용
가. 과장일자 : 2018. 4. 6.
나. 분장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경림동 소재 공실봉안당(☎042-610-2300)
다. 분장기간 : 2018. 4. 6. ~ 2018. 4. 5. (10일)

4. 연락처 : 대전광역시 동구 북저정동(☎042-251-4428)

봄철 야생진드기 주의보...가을보다 더 위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3~6월이 7~12월보다 감염률 2배 높아

가을보다는 봄철에 야생진드기
로 인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
군(SFTS) 감염에 더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
진드기를 채집해 SFTS 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3~6월
기간 야생진드기의 SFTS바이러스
감염률은 평균 0.8%로 7~12월 평
균 0.4%의 2배 수준이었다고 9일
밝혔다.

SFTS란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
드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질병으로
38~40℃의 고열이 3~10일간 지
속되고 구토·설사·식욕저하 등
의 위장관계 증상이 나타난다. 심
하면 혈소판이나 백혈구가 감소하
며 고령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야외최소감염률이란 시료 가운
데 양성으로 검출된 혼합시료의 수
를 진드기 총수로 나눈 값이다.

과학원 연구진은 2016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인천과 전북 일
대에서 야생진드기 1만 6184마리
를 시기별로 채집해 SFTS 바이러
스 감염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채집된 1만 6184마리
중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진드기는 약 80마리(감염률 0.5%)
였다.

월별로는 3월의 감염률이 1.6%
로 1년 중 가장 높았고 4월과 7월
이 0.7%로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
로 6월 0.6%, 9~11월 0.5%, 5월
0.4%였으며 12월에는 0%를 기록

했다.

이를 종합했을 때 3~6월 평균
SFTS 바이러스 감염률이 0.8%로
7~12월의 평균 0.4%보다 약 2배
가 높기 때문에 SFTS 감염을 주의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봄철 진드기와 야생동
물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흡혈활동
이 활발해져 감염률이 높아지는 것
으로 추측했다.

SFTS는 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
에 물려 감염되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4.5월 시기에 최
초 환자가 발생하여 11월까지 감
염환자가 발생했다.

SFTS 바이러스에는 뚜렷한 치
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책이다.
이에 따라 야외에 있을 때는 긴

옷을 착용하거나 장화를 신고 벌레
기피제를 뿌리는 것이 좋다. 풀밭
에는 앉거나 눕지 않아야 하며 집
에 돌아왔을 때는 바로 목욕을 하
고 옷을 세탁해야 한다.

과학원은 연구를 통해 올해 안
에 친환경적인 진드기 기피제를 개
발할 계획이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
전연구팀은 "봄철에 야생진드기
의 SFTS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고,
최근 야생동물에서도 SFTS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며 "야생진드기나
야생동물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노
출을 최소화하는 등 봄철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
부했다.

김태선기자

유통 불나물 진류

농약안전성 '적합'

대전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원장 이재면)은 봄
철 나물의 대량 유통에 따
른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 도매
시장 및 재래시장에서 유통
되는 불나물의 잔류농
약물 검사한 결과 모두 안
전한 수준이라고 10일 밝
혔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
르면 잔류농약 검사는 봄
철에 주로 유통·판매되
는 달래, 두릅, 쑥배, 유
채, 쑥, 냉이, 취나물, 머
위 등 총 26종 126건을 대
량으로 실시했으며,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농산
물의 잔류농약은 세척, 데
치기 등의 세척 및 조리과
정을 통해 대부분 제거
되는 분해되므로 섭취하
기 전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씻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예산소방서,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최근 산행인구 증가와 함께 산악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수암산 주변에
서 삼교을 남·여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등산목 안전지킴이'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산목 안전지킴이'란 등산객이 집중되는 4월과 5월, 2개월
간 주요 등산로 입구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해 군
민의 안전한 산행을 유도하고 산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매
년 시행·운영되고 있으며,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구급차 등 소
방력 근접 배치 ▲등산객 대상 소방체험교육 및 홍보물 배부 ▲
등산객에 상비 의약품 제공 및 기초건강진단활동 ▲등산로 주변
순찰 예방활동 ▲산악사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 수행 등이다.

예산=양성엽기자



대전현충원, 박영하 국가사회공헌자 유가족

4월의 현충인물 선정패 증정식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을정)은 4월의 현충인물로 선정된 '박
영하 국가사회공헌자(1927.2~2013.5)' 유가족(아들 박준영씨 내
외, 딸 박준숙씨) 및 을지재단 관계자 등 18명을 초청, 선정패를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영하 국가사회공헌자는 6.25전쟁 발발 직후 의대 동문들과
의용군을 조직하고 군의관으로 평양탈환작전에 참전, 위기에 빠
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앞장섰다.

이후 학교법인 을지학원 및 재단법인 을지병원을 설립했으며,
사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등 한 평생 우리나라의 의술발
전과 인재양성에 헌신했다.

송병배기자



주택용소방시설, 제대로 '한몫'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유구읍 만천리 단독주택에 화목보
일러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보유한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
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진화는 2018년 공주시에서 거주자가 소화기로 주택
화재 피해를 막은 첫 사례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에 개정됨에 따라 신축되는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의무 설치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14일까지 의무적으
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현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현장에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초
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며 "각 가정에서는 소
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가정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서천소방서, 안전관리 토론회 열어

서천소방서(서장김근
제)는 지난 9일 서천소방서 서정실에서 지난달 아산에서 발생한 소방공무
원 순직과 관련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토론회를 열었다.

태안경찰서, 절도범 끝까지 추적 검거

태안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
난 3월 초 빈집에 침입, 현금 등 천
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쳐 달
아난 범인과 같은 달 중순경 태안
에서 인천으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
과 수표 등 27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낮에 빈집에 침입한 절도범 A씨
(40세)는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피
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침입

하여 범행을 하였고, 절도범 B씨
(55세)는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잠
든 사이 가방 안에 있던 현금과 수
표를 훔치고 터미널 인근 마트에
주인이 없는 틈에 담배 등을 훔쳐
달아났다가 버스 블랙박스와 인근
cctv영상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어 추적수사해 지난 5일 천
안에서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흉전 귀금속 일부
는 대전 등지 금방에 팔아 생활

비에 충당하고 미처 팔지 못한 귀
금속 15점은 압수하여 피해자에
돌려주었다. 지난 해 개서한 태안
경찰은 올 초 농촌지역 전신주 전
선을 절취한 절도사건을 해결했고,
지난 달 초 태안, 서산 지역에서 비
료500포 가량을 훔쳐 달아난 범인
을 검거한 바 있다.

태안경찰서장은 "전 직원들과
함합하여 태안 주민들이 안심하
고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주민 안
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금강청, 금강환경청 신청사 부지 착공식 개최

신청사 신축 관련 경과보고 및 착공시삽 등 진행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10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유성
구 대학로 417에 위치한 신청사 부
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경주 충남 기
후환경녹지국장, 박중근 충북 환경
녹지국장, 김주차 대전광역시 환경
녹지국장을 비롯해 금강유역환경
청 관내 26개 시·군·구 환경부

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신
청사 신축 관련 경과보고 및 착공 시
삽 등이 진행됐다.

금강유역환경청 건물은 1990년
에 준공되었으며, 내진설계 미흡과
노후화로 인한 벽체 균열이 심화
되어 안전진단에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평가된
에 따라 재건축이 결정됐고, 새로

게 건립되는 신청사는 총사업비
214억원이 투입되어 약 9,928㎡ 부
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
립되며, 2019년 10월까지 청사를
준공하고 2019년말 현재의 임시청
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사의 규모는 기존 청
사보다 약 2.2배 증가(연면적 4,178
㎡→9,162㎡)되고, 딱딱한 공공기
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생명의 물
길을 지키는 금강지킴이'를 모티
프로 하는 친환경청사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직원의 근
무환경 및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
인,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 절
감정책에 부합하도록 '건물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
등을 취득하였으며, 에너지 자급률
을 높인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
환경청사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박봉관기자

아산소방서, 봄철 건조한 축사화재 주의 발령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은) 건
조한 날씨에 지속됨에 따라 봄철
축사화재 주의발령 발령했다.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농장의 과
다한 전기 사용과 부주의, 비위생
적인 농장 운영과 초과 전기 사용,
보온을 위해 축사를 밀폐하는 행
위 등 축사 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누전이나 합선사고가 화재로 유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후화된 전기 시설 사용 등

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축사 건축재료로 샌드위치
판발을 사용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급격히 이루어져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방법으로는 ▲축사 주
보온을 위해 축사를 밀폐하는 행
위 등 축사 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누전이나 합선사고가 화재로 유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 주
보온을 위해 축사를 밀폐하는 행
위 등 축사 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누전이나 합선사고가 화재로 유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 주
보온을 위해 축사를 밀폐하는 행
위 등 축사 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누전이나 합선사고가 화재로 유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소방서 정재룡 화재대책과
장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길
이 빨리 번질 수 있다"며, "콘센트
나 전선에 내려앉은 먼지와 거미
줄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
를 수시로 제거해야 하고 소화기
나 고압세척기 등 초동진화 장비
는 축사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소방서, 봄철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안전한 등산문화 및 환경 조성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5월
27일까지 칠갑산 주요 등산로에
안전한 등산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한
다.

이번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산악
사고 대비 긴급구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

되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산
로 주변을 순찰하고 등산객을 대
상으로 상비 의약품 제공, 혈압 측
정 등으로 등산객들이 안전사고
없는 유익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
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등산객을 대상으로 신체이
상 징후자의 등산 자제 요청, 소소
심 익히기 등 안전수칙과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다양한 훈

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정영찬 화재구조팀장은 "대부
분의 산악 안전사고가 기본안전수
칙을 지키지 않거나 본인 체력에
비해 무리하게 산행을 하다가 발
생한다"며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등산객들이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
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이동형 119 안전체험차량 '인기'

당진소방서, 이동형 119 안전체험차량 실시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지
난 2부터 실시하는 이동형 119안
전체험차량이 현재 교육관계자
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인기리
에 진행되고 있다.

이동형 119 안전체험차량은
관할 지역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지진체험, 소화
기 체험, 영상교육체험, 연기피난
및 탈출체험 등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안전수
칙을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는
차량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인명구조사 자격인증시험 대비 맹훈련

부여소방서, 2급 자격인증시험 대비 자체훈련 구슬땀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오
는 5월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되
는 제14회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인증시험을 대비 자체훈련에 구
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10일 밝혔
다.

시험에 응시하는 대원들은 소
방장 전택재, 이상직, 소방교 유
재진으로, 훈련 진행은
어떠한 위험상황에서도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구조대원을 양
성하고, 인명구조사 2급 자격에
응시한 대원 전원 자격 취득을 목
표로 실시했다. 이에 부여소방서
는 119구조대장 3명을 교관으로
부여소방서 청사 후정 등에서 마

베킹을 이용 맨홀 인명구조, 수평
구조, 교통사고 인명구조 등 실기
평가 취약과목을 중심으로 특별
훈련을 실시하고있으며, 부여 실
내수영장에서 스킨스쿠버 잠수
장비 숙달 훈련, 수상구조용 마네킨
킬을 이용 익수사 인명구조훈련,
기초수영 및 임영 훈련 등 수준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광중 현장대응단장은 "이번
정확한 현장 대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구조대원을 양
성하고, 인명구조사 2급 자격에
응시한 대원 전원 자격 취득을 목
표로 실시했다. 이에 부여소방서
는 119구조대장 3명을 교관으로
부여소방서 청사 후정 등에서 마

부여=김태선기자

“구직자, 면접 한번 볼 때 평균 6만원 지출!”

<사람인>조사결과... 면접 준비 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 첫 번째로 꼽아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비를 비롯해 의상 구입비, 면접 컨설팅 비용 등 부가적인 지출이 적지 않다. 실제로 구직자들은 면접을 볼 때 1회 평균 6만원을 지출하며, 80% 이상이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 694명을 대상으로 ‘면접 1회당 평균 지출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6만원으로 집계됐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 거주자가 7만 1천원으로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5만 5천원)보다 많았다.

응답 구직자 10명 중 8명(80.5%)은 면접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들 중 38.6%는 비용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면접 준비 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는 ‘교통비’(45.2%)를 첫 번째로 꼽았다. 특히, 지방 거주자의 59.2%가 교통비를 1위로 선택해,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37.6%보다 21.5%)가 높게 나타났다.

계속해서 ‘의상 구입비’(32%), ‘면접 컨설팅, 강의’(7.8%), ‘헤어, 메이크업비’(6.6%), ‘숙박비’(4%), ‘식비’(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남성의 경우 52%가 ‘교통비’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여성은 ‘의상 구입비’(40.9%)를 첫 번째로 꼽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보였다.

그렇다면, 기업으로부터 면접비를 얼마나 지급받고 있을까?

응답자의 39.8%가 ‘면접비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급받은 면접비는 평균 3만원으로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응답자(798명) 중 84.2%는 기업들이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면접비는 평균 4만원으로 집계되었

다.

면접비 지급 여부가 기업 이미지 또는 입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86.7%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를 선택해, ‘별 다른 영향 없다’(13.3%)보다 6.5배 이상 답변 비중이 높았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면접비 지급은 기업의 이미지와 입사 여부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구직자들을 위한 배려 측면에서도 면접비 지급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위한 메이커교육

대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운영 안내 및 사례 발표 등 정책설명회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0일 대강당에서 초·중·고 메이커교육 담당교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이커교육 정책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메이커교육 운영을 안내하고, ‘미래사회와 메이커교육’을 주제로 특강했다. 또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에서의 메이커교육’으로 사례발표를 실시했다.

메이커교육이란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창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발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다. 메이커교육은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은 물론, 컴퓨터를 이용한

주변 장치 구동, 각종 모형 제작, 드론 이용 모델링 등 다양한 내용으로 실현될 수 있다.

대전교육청은 올해 메이커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 메이커교육 실시 및 체계를 위해 메이커교육센터(충남기계공업고 내)를 구축할 계획이다. 메이커교육센터는 오는 6월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구체물을 만들고 구현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코딩 및 전자회로 제작, 3D 모델링(프린터) 및 로봇 구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서천교육지원청, 아침밥 먹기 캠페인 실시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등교맞이 캠페인을 지난 9일 마동초등학교에서 실시했다. 이번 등교맞이 캠페인은 하이파이브를 통해 따뜻한 손의 온기를 전달하고 학생들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절기마다 웃는 꽃에서 배우는 참살이 공부

이산교육지원청, 학부모회장 및 학부모업무담당교사 연수

이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시훈)은 10일, 대강당에서 학부모회장 및 학부모업무 담당교사 150명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이시훈 교육장이 이산교육지원청의 ‘절기마다 웃는 꽃에서 배우는 참살이 공부’란 주제로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내용들을 절기마다 피는 꽃에 비유하여 열두 항목별로 짚어주는 유익한 내용이었다.

이어서 한정준 주무관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강의로 부정청탁 관련 통계와 실태를 보여주며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청렴과 소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어서 업무담당자의 2018년 학부모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등의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회와 업무담당교사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조가 이루어져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업무 공유의 시간이었다.

이시훈 교육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는 속담처럼 학부모와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행복한 우리아이들과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학부모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산-리영주기자

행복한 예산교육을 위한 소통협의회

예산교육지원청, 유·초·중·고 교(원)감 4월 장학협의회 실시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화) 예산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교(원)감 43명을 대상으로 즐거운 변화 함께 행복한 예산교육을 위한 소통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을 교감 대상 통합회의로 정례화해 정례적인 교감 회의와 전달연수 외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날은 청렴 동영상을 시청 후 국민연례가 진행되었다. 특히 국민연례에는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예산 10경을 중심으로 제작된 애국가가 상영되어 참석자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주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신규 및 전임한 교(원)감 소개에 이어 진행된 연수에서는 2018학년도 업무추진 안내와 교육공무원과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연수,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 2018 예산 행복교육지구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충남 교원 인사정책과 현안 문제에 대한 연수가 이어졌다.

앞으로 예산교육지원청은 교(원)감 장학협의회를 통해 자율장학 역량을 강화하여 즐거운 변화 함께 행복한 예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산=양성엽기자

‘꿈키움 멘토링 멘토단’ 위촉식 가져

공주교육지원청,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자 하는데 목적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은 지난 10일 멘토단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꿈키움 멘토링 멘토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꿈키움 멘토링’은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멘티를 맺어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 및 학업성취 의욕을 북돋아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주교육지원청 We센터는 교직원 14명, 대학원생 5명, 학생상담자 자원봉사자 8명을 멘토로 위촉하여 멘토링을 실시한다. 관내 중·고등학생 24명을 멘티 학생으로 결연하여 학습, 체험, 진로, 체육활동, 심리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 적응력 및 미래의 인생 설계능력 함양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덕 교육장은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멘토 선생님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조언과 멘토링 활동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의미를 찾아 자신의 꿈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따뜻한 멘토링 활동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주교육지원청은 꿈키움 멘토링 외에도 학업중단순려제등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예방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공주=정성범기자

서부평생학습관, 초·중·고 특수학급 지원

서산지역 초·중·고등학교 24개교 특수학급 학생 145명 대상



서부평생학습관(관장 김갑배)은 부성초등학교 등 서산지역 초·중·고등학교 24개교 특수학급 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특수학급 감각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수학급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 아동 등 도움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감각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24교 48강좌를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24교, 24강좌가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지속 운영되며, 교육내용은 성교육, 인권교육, 미술심리치료, 원예치료 등 치유프로그램, 방송댄스, 오키리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각 학교 및 학생의 특성에 따라 지원된다.

김갑배 서부평생학습관장은 “특수학급 지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일환이며, 다양한 경험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감각발달을 통한 잠재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산=김정환기자

‘학교교육과정-평가 운영 역량 강화 연수’

청양교육지원청, 학교교육과정·학생평가·학업성적관리규정 컨설팅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은 지난 9일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평가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관내 초등학교 교감, 교무, 연구 업무 담당자와 관내외 예산교육지원청 희망 교사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 수립된 학교교육과정을 중심으로 3월부터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교사들의 학교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의 역량강화를 위해 준비했는데, 용정초등학교 이기태 교장을 강사로 초청해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 일체화와 과정 중심 평

가의 이해와 적응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강의 이후 청양교육지원청 초등 교육과정-평가 컨설팅 지원단들이 권역별 교육과정 업무담당자와 함께 학교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졌다.

윤주역 교육장은 “이번 연수로 교사들의 전문성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설계·운영으로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자라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세종시교육청, 기록관리 업무역량 강화 연수

기록물관리연구동아리 회원 40여명, 국정운영 핵심인 청와대 견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0일 세종시교육청 기록물관리연구동아리(회장 김명희, 이하 기록물관리연구동아리) 회원 등 40여 명이 우리나라 국정운영 핵심인 ‘청와대’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기록물관리연구동아리는 세종교육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기록물관리 공무원 약 4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적 직원수와 협업은 물론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등 선진기록관 견학 등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기록물 관련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 견학은 ▲홍보관 ▲녹지

원 ▲구 본관 ▲본관 ▲영빈관 ▲철궁 ▲부궁화 등산 ▲사랑채 코스로 진행됐으며, 특히, 과거 경무대로 불렸던 구본관터(1993년 철거)와 대규모 회의나 외국국빈을 위한 연회 장소로 잘 알려진 영빈관을 관람하고, 조선시대 왕을 낳은 일곱 후궁들의 신위를 모신 철궁과 대통령 전시관도 방문하여 관련 기념품과 전시품을 관람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세종교육 기록물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 담당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기록연구 활동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대학 졸업까지 IT 인재를 이끌다”

우편사업진흥원, IT 관련학과 재학생에 졸업까지 매년 100만원 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2018년 IT육성장학금 대상자를 오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IT 육성장학금은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는 IT 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해 2017년 처음 신설됐다. IT 관련학과 2~4학년 대학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00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2018년부터는 4차 산업 혁명 인재 육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선정된 장학금 대상자에게는 학점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 시까지 매년 100만원을 지급한다.

IT 육성장학금 신청은 대학에서 각 2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진행되며, 학점, IT 관련성, 봉사활동, 학업의지 계획서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제출서류는 장학금신청서, 추천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페이지(www.p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병배기자



금곡초, 푸른나래 학부모회 놀이시설 도색 아산 금곡초등학교(교장 백순덕) 푸른나래 학부모회는 지난 9일, 학생들의 행복한 놀이터 조성을 위해 분동과 후동 사이에 행복놀이시설을 그렸다. 학부모회에서는 금동이들의 놀이시설 확충 및 전래놀이의 보급을 위하여 사방치기, 달팽이 놀이, 돈가스 놀이 등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도색 작업을 했다.

동정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이창규 아산시장 권한대행=11일 오전 10시 시청 상 황실에서 열리는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에 참석.

철제 공예예술작품 준공식



김홍장 당진시장 =11일 오전 10시 삼선산 수목원에서 열리는 삼선산 수목원 철제 공예 예술작품 준공식에 참석.

협력지자체 심포지움



한상기 태안군수 =11일 오후 1시 만리포 통비치오텔에서 열리는 '해안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지자체 심포지움에 참석.

전국복싱대회 개최식



강준배 청양부군수=11일 오전 11시 청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38회 장애인 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마당에 참석. 오후 2시 청양군 예회관에서 열리는 2018대한복싱협회 회장배 전국복싱대회 개최식에 참석.



배방읍 국도 공원화 꽃동산 조성

아산시 배방읍읍장 조국환은 국도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온천대로변에 대규모 영산홍 및 봄꽃을 심어 도심생활로 지친 시민들에게 봄 내음과 꽃향기로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새봄을 맞아 배방읍사무소 주변 주요 도로 가로화단에 팬지, 비올라, 튜립 등 화려한 색의 봄꽃을 심어 오고가는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또, 배방읍은 봄맞이 마을별 대청소 실시, 폐비닐과 폐농약병 수거 등 지속적인 환경정화 운동을 실시해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희망미래 발굴 지역 청년들과 맞손

태안군, 지난 9일 군민과 함께 하는 '청년 정책 발굴 토론회' 열려

태안군이 지난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 행복 함께 만들어가는 태안'이라는 주제로 '청년 정책 발굴 토론회'를 열어 큰 화제를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n포세대'라 불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바로 알고 소통을 통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군은 지난해 11월에도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군민 300여 명의 참여 속에 '군민공감 정책 대 토론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군민과 함께 지역의 현안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행정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원유통포럼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상기 군수 등 군 관계자를 비롯, 총 100여 명의 군민이 토론자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지난해 토론회 당시 큰 호응을 얻은 토론행식을 다시 채택, 각 원탁 별 토론 진행을 돕는 퍼실리테이터를 참여시켜 원활한 진행



을 돕고 포스트잇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울러, 토론 과정에서 한상기 군수 및 군 관계자들이 수시로 토론자들과 대화하며 작은 의견까지 세심히 경청하는 등 군민들의 뜻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의

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성(청년 정책기반 조성 분야) ▲안정적 일자리 조성(청년 일자리) ▲청년 농업인 기반시설 확충(정주여건 조성) ▲문화시설 구축 및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인재양성 및 문화활동) ▲자격증 등 각종 성인대 상 교육 여건 조성(기타) 등이 가장

시급한 이슈로 선정되는 등 참여자 모두가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며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군은 이번 토론회가 지역 청년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점들이 무엇인지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앞으로 이들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접목한 최적의 시책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군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해 군민 중심 정책 선도도시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상기 군수는 "이번 청년정책발굴 원탁토론회를 통해 태안군에 적합한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등 청년의 사회참여와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군민들께서 주신 의견은 한걸음 한걸음 검토해 가능한 한 군정에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군정 운영에 힘써 '희망찬 태안'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주간재활 프로그램 연중 운영

당진시, 정신장애인 사회 적응·복귀 훈련 적극 돕는다

당진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적응 훈련과 복귀를 위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중이다.

재가 정신질환자 중 희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역사

회 적응과 복귀를 위한 일상생활훈련과 사회기술훈련, 사회 적응 훈련 등이 진행된다.

특히 신체활동과 난타, 미술, 연극, 영화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활의지를 높여주고 있어 대상자와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회원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환우 간 협동심과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소는 정신 장애를 가진 대상자나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정신

건강 향상과 자살예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아산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영인면 꽃동산 제초작업·영농폐기물 수거 실시



아산시 영인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박노걸, 부회장 손미옥)는 9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꽃동산 가꾸기 및 폐비닐 수거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남·여 새마을지도자 30여명이 참여해 아산온천 홍보탑 주변 및 아산2리, 성내2리 등에 위치한 꽃동산 3개소 제초·전정 작업으로 진행했다.

또, 마을 단위별로 수거된 농촌 폐비닐 및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5톤을 수거해 아산리 집하장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과 일반 소각용

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 작업도 이어졌다.

박노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마을 어귀에 널려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꽃동산까지 깨끗하게 가꿔놓으니,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며,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자연 순환 의식을 확산하고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정희 영인면장은 꽃동산 제초 작업 및 폐비닐 수거에 참여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들을 격려하고 깨끗한 영인면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시험 청양 청정하늘에서

청양군, 초경량비행장치 시험장유치

청양군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시험장 유치를 위해 시험 시행처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도(道) 단위에 1개소씩 설치되는 실기시험장으로 청양공설운동장을 최종 확정하고 주 2회 시험을 통해 항공인을 배출할 예정이다.

드론은 항공, 정보통신기술(CT), 소프트웨어(SW) 등 첨단기술 융합 산업으로 제작시장 성장뿐만 아니라 활용시장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 국내 드론시장은 태풍기로 군(軍) 수요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촬영·농업용을 중심

으로 민간 수요도 폭발적 증가 추세에 있다.

군 관계자는 "충남의 중심 청양은 늘 푸른 산야를 자랑하는 장소가 많아 항공인들이 가족과 함께 방문해 청정하늘을 가르며 시험 합격의 기쁨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태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

태안군이 태안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2% 세율로 신고

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산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에는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모두 포함되며,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태안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사업장을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기간에 정확히 신고·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1-670-2732)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환기자

우리/동/네



"책 읽기 좋은 4월 도서관에 모여라"

당진시립도서관, 도서관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마련

당진시립도서관은 제54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4월 한 달간 '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도서관 가는 날'을 주제로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정한 도서관주간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로, 독서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됐다. 또한 이달 23일은 1956년 유네스코가 독서출판을 장려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기도 하다.

이에 당진시립도서관은 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도서관주간과 세계 책의 날의 의미를 알리고 도서관을 찾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먼저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2018 북 콘서트는 이달 25일 오후 7시 김영하 작가를 초청해 당진시립중앙도서관 영상강의실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오는 14일 오후 2시에는 중앙도서관 영상강의실에서 '도깨비를 뿔아 버린 우리엄마' 그림책인형극이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도 ▲그림책 원화 전시 ▲표어 공모전 ▲두 배로 대출 ▲독서통장 만기 축하 이벤트 등이 진행되며, 중앙 시립도서관 외에도 함덕 도서관과 송악도서관을 비롯해 당진 관내 작은 도서관에서도 각기 다른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주간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로 시민에게 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라며 "도서관이 책만 읽는 딱딱한 곳이 아닌 재미있고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칠갑산도립공원을 지켜라

대치면 산불진화대·감시원 산불진화 교육 실시

청양군 대치면면장 김종용은 지난 10일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한 교육 및 실습을 실시했다.

진화차량은 조장, 부조장, 대원 3인이 한 조를 이뤄 산불 발생 시 현장에 즉시 출동하며 진화 작업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 바람을 등지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초동 진화를 실시하고, 이후 산불지휘 통제 본부의 지시를 따르게 된다.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조장 이한병씨는 "평상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초동진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종용 대치면장은 "실전 같은 연습을 자주 실시해 도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치면을 산불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행복아파트 만들기 사업' 협약 체결

아산시보건소, 지역주민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위해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11일, 읍내주공아파트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위해 '읍내주공 행복아파트 만들기사업' 운영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 참여기관은 아산시보건소,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주택관리공단아산읍내관리소, 온주종합복지관 4개소이다.

행복아파트 만들기 사업 대상인 읍내주공 아파트는 아산시 취약지역 중 하나로 '아산시 취약지역 시민 건강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건강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함이다.

김은태 아산시보건소소장은 "협약기관과의 업무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금액이 저해돼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우리/동네

서동로 340m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

유동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계룡시, 토지경계 분쟁 해결 계기 마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충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염사면 '유동1지구' 179필지 14만2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유동1지구는 토지경계에 분쟁이 빈번한 불분합지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70.1%의 동의율 얻어 충청남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해 지난 3월 30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체감정기에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위성(GPS)측량 등 최첨단 측량기술을 이용하여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앞으로 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개 지구 67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7년 사업지구인 두계1지구 161필지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토지분쟁이 해소되어 불필요한 경계측량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군 부여읍 군청로터리에 서동로 약340m 구간이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거리로 조성된다.

부여군군수 이용우(우)이 충남도가 시행한 '2018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억 1,25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군청로터리에서 공남지로 이어지는 서동로의 무질서하고 노후된 거리를 정비해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 디자인 부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든다.

대상지 주변은 공남지와 향토음식문화거리가 있는 문화적, 역사적 공간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유입이 많아 도시디자인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최적의 장소이다.



기존 계획 없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물과 비좁고 관리가 되지 않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보행환경, 맛없고 특색 없는 경관이며

지 등을 개선해 부여의 문화적, 역사적 옷을 덧입힌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남지로 이어지는 거대한 만큼

연꽃을 패턴화해 보도블록, 보호판, 횡단보도, 볼라드 등에 활용한다.

특히 군청 임시주차장 앞을 포켓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설치한다.

보행신호 체계가 없어 위험성이 컸던 횡단보도를 정비하고, 기존 가로등에 LED등을 추가로 부착해 야간에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 사고를 방지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참여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부여군 대표 관광객 유입지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통정

간담회



황명선 논산시장은 11일 오후 3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논산시 브랜드 시민의견 수렴타운홀 미팅에 참석, 오후 5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되는 2018 청소년자치기구 발대식 및 간담회에 참석.

착수 보고회



노박래 서천군수는 11일 오전 11시 30분 집무실에서 열리는 서천군 소상공인특별보증 업무협약식에 참석,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서천군 해양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착수 보고회에 참석.

민간 주도 SNS 해외홍보 활동 개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세계에 부여를 알린다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4월부터 다문화가족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내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부여사랑 해외홍보단'을 운영, SNS를 활용해 외국인들에게 '부여 알리기' 홍보를 시작한다.

군은 지난 7일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부여사랑 해외홍보위원 23명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들은 즉각적인 소통과 홍보가 가능한 SNS를 통해 세계유산도시 부여의 관광자원과 축제, 굿뜨래 10미 등 농·특산물을 소개하며 부여의 아름다움을 해외에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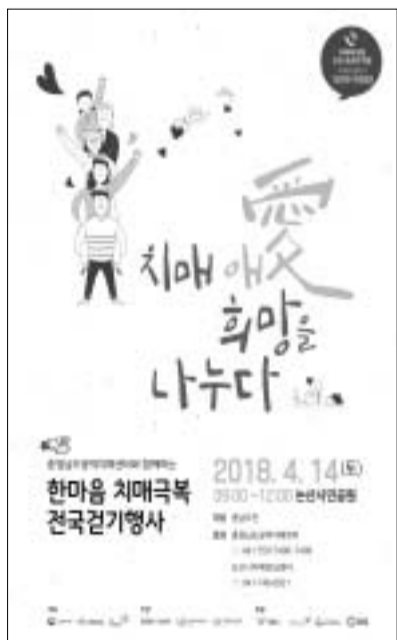
홍보위원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내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회원들로부터 희망자 신청을 받아 구성했다. 본인들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모국의 가족과 친지, 친구 및 지인 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여사랑 해외홍보단 운영을 통해 한국과 부여에 관심이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부여를 널리 알리고 소통해 다른 문화와도 교류하는 가교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라며 "부여군이 세계 속 역사관광도시로 긍정적 이미지 형성돼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여군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유학생이 부여알기 및 자발적 SNS홍보 참여를 통해 거주하고 생활하는 부여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는 시티투어 실시 등 홍보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대회

논산시민공원에서 '치매(愛) 희망을 나누다' 주제로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14일 논산시민공원에서 '2018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중앙치매센터가 주최하고 논산시, 충청남도공영치매센터, 논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주관하는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는 치매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愛) 사랑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 8시 30분 참여자 등록을 시작으로 풍물놀이 등 사전공연, 개회식, 치매예방운동법 시연 후 10시부터 논산시민공원을 함께 걷는다.

시는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는 치매에 대한 관심과 극복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치매정보를 제공하고 간단한 인지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 및 치매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치매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웃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며, "이웃, 가족과 함께 걸으며 지역사회가 공동보호자가 돼 모두가 행복한 동고동락 논산건설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청년'이 기획하는 젊은 '제29회 한산모시문화제'

모시 본질 나태널 프로그램 기획 등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할 것



한산모시문화제 추진위원회위원장 노박래는 지난 9일 서천군청회의실에서 제29회 한산모시문화

제 운영을 위한 청년문화기획단 각 분야의 청년전문가 34명을 위촉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서천군에 따르면 축제 또는 대형 행사 대부분이 전문 대행사들을 통해 획일적으로 운영돼 행사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산모시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청년문화기획단의 젊은 아이디어를 살려 모시의 본질을 부각한 제29회 한산모시문화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위촉된 청년전문가 34명은 한산모시문화제가 한산모시의 본질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 및 운영하게 되며 이를 통해 그 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기획, 홍보, 마케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단순한 보여

주기식 행사가 아닌 프로그램 하나 하나에 모시의 본질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추진위원회는 청년문화기획단 구성원의 대다수가 서천을 중심으로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한산모시문화제가 더욱 지역과 밀접하게 운영됨으로써 많은 지역민이 참여하고 즐거움을 갖는 문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박래 한산모시문화제 추진위원장은 "제29회 한산모시문화제는 지역의 청년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져 한산모시의 새로운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29회 한산모시문화제는 '천오백년을 이어온 한산모시, 바람을 읽다!'라는 주제로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한산모시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시민 의견 듣는다

천안시, 5월 4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설문조사·의견수렴

천안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위해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석오 이봉녕 선생 등 순국선열들의 흔이 살아 숨 쉬는 애국충

절의 고장에 걸맞은 다양한 기념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한다.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천안시 홈페이지(<http://www.cjcm.go.kr>)에 접속해 천안시(다)어소통센터-시정참여센터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관 주도라 아닌 각계계층의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기념사

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사업 논의를 위한 1차 회의를 실시한데 이어 이달 중 2차 회의를 열어 추진단 명칭, 분과 구성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막희 복지문화국장장은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천안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국가사업에도 귀 기울여 국가와 연계한 사업을 통해 각종 지원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이봉호기자

봄나들이 방해꾼 관절염 '수중 운동'으로 통증 잡자

논산시보건소, 관절염 수중 운동 교실 '인기'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운영하고 있는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이 주

민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은 신체 활동량 감소 및 과잉 영양섭취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만성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사전예방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관절염 수중 운동교실'은 3월부터 10월까지 국민체육센터에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중 운동은 물속에서 균형감과 굴곡운동, 신진대사와 근력강화, 지구력과 유연성 기르기 등 모든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이다.

아쿠아 붐을 이용해 신나는 음악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 관절염 치유 효과가 물론 어려움을 겪는 질환자 간 유대감도 높여 인기가 높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중운동은 부력을 이용한 운동으로 체중에 부담이 없고 부상의 위험이 적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약해진 하체 체력을 강화하고 신체 균형 발달 등 대상자들의 건강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기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회원 모집 예정으로 수중운동교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운동처방센터(041-746-8130)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김태선기자

서천군보건소 제46회 보건의 날 홍보관 운영·캠페인 실시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은 제46회 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6일 '함께 건강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캠페인은 가졌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천특화시장 일원에서 군민들의 건강, 특히 심뇌혈관질환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건강가족시작은 자 기혈관 숫자 알기부터' 내 혈압·혈당 알기의 이동홍보 및 체험관을 운영했다.

보건소는 체험관에서 주민들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수첩에 기록, 수치가 높은 대상자에게 영양, 운동, 약복용 등 건강생활실천을

안내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특히, 이번행사는 군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건사업-국가 암 조기검진,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올바른 손 씻기, 자살·치매예방, 엽미와 아

기의 건강지킴이 등을 안내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소가 군민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기구정설 기념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제정하고 각국이 '보건의 날'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천=김태선기자



안전한사업장 만들기 위한 역량 강화 천안시, 안전관리대책 등위한 교육 실시

천안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전관리대책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2단계 천안형 공공근로사업과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사업담당 공무원 등 2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 안전사고 사례 위주 유형별 사전 대처 방안,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산업 안전보건법령 등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준수 사항을 전달했다.

권희성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봉호기자

공공도서관 도서관 주간행사 운영

계룡시, 대출 금지회원 특별혜택 부여

계룡시(시장 최홍묵)공공도서관은 제54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주간을 맞아 회원들에게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홍보하고 책을 매개로 한 행사를 통해 도서관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기간 도서 대출연체자를 위해 연체도서를 모두 반납하면 대출정지를 즉시 해제 해주는 특별 이벤트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동안 도서 대출 연체자는 연체기간 만큼 도서를 대출받을 수 없어 연체기간 종료 시까지 기다렸던 신규 도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또 티쳐스인성교육연구회 소속 선생님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학부모 대상 자녀 교육 강연이 14일 오전 10시 계룡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14일 오후 계룡도서관에서 영화 스노우타임을 상영하는 등 주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주간 행사를 통해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공공도서관(042-840-3602)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lib.gyeongsang.go.kr)를 참고하면 된다.

통정

4월 중 직원모임



오시덕 공주시장은 11일 오후 4시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4월 중 직원모임에 참석.

기업체 근로자와의 현장 간담회



김동일 보령시장은 11일 오전 11시 40분 쉼에 프엠에서 열리는 기업체 근로자와의 현장 간담회, 오후 2시 보령우체국에서 열리는 저소득층 생애보편 지원협약식 참석.

농업인단체협의회 총회



이완섭 서산시장은 11일 오전 11시 서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서산농업인단체협의회 총회 및 영농교육에 참석.

생태치유숲길 조성 중간보고회



박동철 금산군수는 11일 오후 2시 상황실서 열리는 생태치유숲길 조성 중간보고회에 참석.

통학차량 1일 수호천사 활동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11일 오전 7시 50분부터 탄천초등학교 통학차량에 탑승하여 '등굣길 통학차량 1일 수호천사' 활동을 실시.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려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도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서산 해미천 벚꽃축제 14일부터 열려

공군 군악대 공연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 다채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도 다녀간 곳으로 유명한 서산시 해미천에서 벚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시에 따르면 벚꽃만개시기에 맞춰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해미천 일원에서 '제2회 해미천 벚꽃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서산시 해미천 일원은 20여년전부터 애항회와 주민들이 식재한 2.7km구간의 600여그루 벚꽃나무가 생태하천과 어울려 멋진 장관을 연출할 전망이다.

개막식에서는 공군 군악대 공연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벚꽃음악회, 각종 체험행사, 농·특산물판매, 불꽃놀이 등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축제 전후 2주간 벚꽃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벚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해미천을 산책할 수 있다. 해미천벚꽃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호영에서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마련하고 유관기관들과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등 성공적 축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중권 서산시 해미면장은 "다양한 공연과 즐길거리가 가득한 벚꽃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매년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하기자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강식

공주시시장 오시덕은 지난 9일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에 단절된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훈련 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구인구직 수요조사와 공주시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해 발굴한 선호직종을 반영해 마을공동육아협동조합 만들기 과정, 멀티회계사무원 전문과정, 중소기업 캐드전산사무원 양성과정, 백제문화원형 콘텐츠디자이너 양성과정의 4개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에 참여하는 60여명의 교육생들은 각 과정별로 전문 교육을 수강한 후, 자격증 취득 및 전문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취·창업에 도전하게 된다.

오시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주새일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보육지원 등 육아 서비스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의 고충에서 벗어나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강식에서는 직무수요양육으로 헤어웨어 브랜드 씨크릿우먼 김영후 대표가 '여성 감성이 미래의 자원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직업교육훈련 4개 과정 중 백제문화원형컨텐츠디자이너 양성과정은 6월 4일에 개강할 예정이며 교육생은 5월 25일까지 모집한다.

공주=정성범기자

“공주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3월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 '적합' 판정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3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주지역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은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아 모두 먹는 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노후관 폐설지역 수질 확인을 위해 아연 등 10개 항목에 대한 노후 수도꼭지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급수과정에 따른 수질변화 확인을 위해 pH와 탁도 등 11개 항목에 대한

급수과정 시별별 검사도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옥룡, 유구 및 공주정수장에 대한 3월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미생물 3종, 건강상 유해영양 무기물질 11종, 유기물질 17종, 소독부산물 12종 및 심미적 영향물질 16종 등 59개 검사항목 모두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이와 함께, 각 급수구구에 따라 산출해 선정된 총 26개의 급수과정 및 3개소의 노후 수도꼭지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염소는 적정 수준이

었으며, 모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체에 필수 영양물질인 철, 아연 등은 유해무기물질이 아니라, 심미적 영향물질로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기준치보다 훨씬 미량으로 음용하기에 적합하다.

오동기 수도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맑고 건강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보령시 수산물 대축제 개최

14일부터 공연·체험행사다채...어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보령시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대천항 일원에서 2018년 수산물 대축제를 개최한다.

(사)한국수산업경영인보령시연합회(회장 김필성)가 주최·주관하고, 보령시와 보령수협, 대전서부수협, 중부발전, ㈜보령 LNG터미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수산물 판로확대를 통한 어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행사는 대천항 공영주차장에서 열리며, 14일 낮 12시 30분부터 관광객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떡메치기 체험으로 진행되고, 개막식



은 오후 6시부터 초대 가수 진성과

우연이를 초청한 가운데 행사의 포문을 연다.

28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멸치 무게 맞추기 체험, 대형 김밥만들기, 맨손 고기잡이 등 체험행사와 시민 및 관광객 노래자랑, 지역 예술인 초청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회 무료시식회, 수산물 짬짬 경매, 수산물 10% 할인과 부대 행사로 LED 부채 만들기, 캐리커처, 타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필성 연합회장은 "봄기운이 완연한 대천항에서 신선하고 영양가 가득한 수산물도 맛보시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족, 연인, 지인과 잊지 못할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금산 산림문화타운 오감만족 숲 체험 프로그램 본격 가동

중부권 최고의 생태종합휴양단지 '금산산림문화타운'이 봄바람과 함께 가지개를 켜고 있다.

산림생태의 명소로 꼽히는 금산산림문화타운은 원시림에 가까운 숲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산림시설이 연계돼 생태교육, 휴양, 산림치유의 자연이 주는 특별한 혜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2018년 숲, 목공 체험프로그램' 참여단체 모집을 끝내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들을 위한 '숲에서 놀자', 임산부 대상의 '자연친화적 숲태교',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숲힐링 청춘교실', 다문화의 '행복한 숲속여행'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잇따라 문을 연다.

숲, 목공 체험프로그램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감성·인성·신체 발달과 더불어 숲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고생들의 팀활동 목재건축 체험인 '학교내 아지트'에 진산중학교 등 2개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숲속 창의 활동인 '행복한 숲이야기 학교'에 마천어린이집 등 10개소, 학교숲과 연계한 자연 체험학습인 '찾아가는 생태학교'에 제원초등학교 등 10개소가 선정돼 오는 5-6월과 9-10월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금산산림문화타운은 교육기관과 단체, 가족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생태 숲에서의 숲체험 및 하늘놀이터, 하늘슬라이드, 숲속교실에서의 생태놀이활동과 더불어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까지 하루 체험코스로 충분하다.

특히 목재문화체험장의 인기는 으뜸이다. 1층에는 유아에서 목공에 전문가까지 다양한 목공수업을 할 수 있는 초급-중급-고급 체험장이 있고, 2층에는 목재문화에 대한 상설전시장이 있어 전국의 우수한 목공작품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기획전시장, 자료실, 카페테리아, 야외에는 트리하우스 목재체험활동 공간으로 구성된 산림문화의 재미를 더한층 느낄 수 있어 체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숲해설은 무료로 진행되며, 목공프로그램은 최소한의 재료비로 문패, 시계만들기 등 대상별로 17가지 체험을 골라서 할 수 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하면 된다.

금산=주연기 기자

우리/동네 제38회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서산시는 10일 서산시민체육관에서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서산시장에인연합회 주최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이완섭 시장과 성일종 국회의원 및 우종재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24명에게 모범장애인 표창과 장애인복지유공 감사패가 전달된 기념식과 함께 축하공연 및 장기자랑 등의 흥겨운 행사가 함께 펼쳐진 어울림 행사가 진행됐다.

이완섭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들고 서로 의지하며 편견의 벽을 허무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하기자

현대식 전통 가옥 MOD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현대. 박정호 FAX. 042. 624. 1204 HP. 010.7472.4972 pjn71456@hanmail.net

1 전통정적 아름다움
2 남향에 최적화된 구조
3 아름다운 외관

현대적 디자인, 전통정적 아름다움, 남향에 최적화된 구조, 아름다운 외관, 3. 아름다운 외관

현대적 디자인, 전통정적 아름다움, 남향에 최적화된 구조, 아름다운 외관, 3. 아름다운 외관

오늘의 하이라이트

▲ 파도야파도야(KBS2 오전 9시00분)



순영(서하)은 자기 집에 정재(정현)를 숨긴다. 정재(정재호)는 창식(선우재덕)에게 동생이 대국건설 일에 연루되었다며 조사를 부탁한다.

▲ 해피시스터즈(SBS 오전 8시30분)

화영의 정체를 알아갈수록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진섭. 예은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가고, 술에 취해 예은의 집으로 찾아가는 날

케이블 명화

▲ 공조(OCN 오후 8시10분)

영화 '공조'는 동판을 찾기 위해 북에서 내려온 형사와 대한민국 형사가 서로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해가는 코믹 액션 영화.

비밀리에 제작된 위조 지폐 동판을 탈취하려는 내부 조직에 의해 작전 중 아내와 동료들을 잃게 된 특수 정예부대 출신의 북한형사 '립철령'(현빈).

동판을 찾아야만 하는 북한은 남한으로 숨어든 조직의 리더 '차기성'(김주혁)을 잡기 위해 역사상 최초의 남북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그 적임자로 철령을 서울에 파견한다.

한편, 북한의 속내가 의심스런 남한은 먼저 차기성을 잡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고, 정직 처분 중인 생체형 형사 '강진태'(유해진)에게 공조수사를 위장한 철령의 밀착 감시를 지시한다.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철령과 임무를 막아만 하는 진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 특수부대 북한형사 vs 생체형 남한형사

한 팀이 될 수 없는 남북 형사의 예측불가 공조수사가 시작된다!

들이 계속된다.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승미는 형주와 예은의 교제가 탐탁지 않음을 형주에게 밝히지만 형주는 승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승미를 설득하는데...

▲ 전생애 원수들(MBC 오후 7시15분)



실은 저 그 아저씨랑 친해요. 고윤(노영민)과 태평(한지희)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점점 더 친해진다. 한편 고야(최유영)는 태평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사제집으로 향하는데...

▲ 맨오브스틸(채널CGV 오후 2시50분)

새로운 전설의 시작! 이제 영웅은 달라져야 한다!

무차별적인 자원 개발로 멸망위기에 처한 크립톤 행성. 행성 최고의 과학자 조엘(러셀 크로우)은 갓 태어난 아들 칼엘(헨리 카빌)을 지키기 위해 크립톤 행성의 꿈과 희망을 담아 지구로 보낸다.

자신의 존재를 모른 채 지구에서 클락이라는 이름으로 자란 칼엘은 남들과 다른 능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아버지(케빈 코스트너)로부터 우주에서 온 자신의 비밀을 듣게 되면서 혼란에 빠진다.

한편, 크립톤 행성의 반란군 조드 장군(마이클 새넌)은 파괴된 행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유전자 정보가 담긴 코백스가 칼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 부하들을 이끌고 지구에 온다.

이제 칼엘은 자신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사는 지구의 존재를 두고 최강의 적 조드 장군과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가슴의 'S' 마크가 뜻하는 '희망'의 이름으로, 칼엘은 이제 지구인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이며,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도록 돕는 슈퍼맨으로 거듭난다.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1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 협회 060-398-3355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프로그램

*문의 ▶KBS 470-7320 ▶MBC 220-2348-9 ▶TJB 281-1101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Main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programs and their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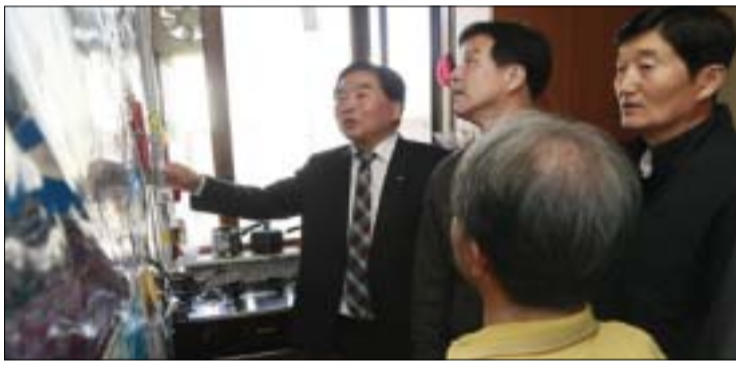
2018 서구 야구소프트볼 협회장기 4월 1주차. Includes tournament schedule, standings for various leagues (e.g., Best of Best, 대청야구단), and contact information.



충남선관위 '아름다운선거 캠페인' 실시 충남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천안 아리리오 광장에서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참여 등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선거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금산부자양계 김영철 대표 계란 1000판 기탁 금산부자양계 영농조합 김영철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면 인삼계란 1000판을 금산군에 기탁했다. 김영철 대표는 매년 2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인삼계란을 100여판씩 기부하고 있으며 이 계란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사레관리가구 등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정성스럽게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동네 가스안전지킴이 '돈가스(Don't Gas)'를 드려요" 대덕구 오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오정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영주)는 가스레인지 과열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차대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가스안전지킴이 '돈가스(Don't Gas)'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 노인구강보건교육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학과장 양진영)는 지난 4월 5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태안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52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건강관리 봉사활동 MT를 시행하였다.



청양군 복싱팀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청양군 복싱팀 후원업체들은 지난 9일 군청 복싱팀 훈련장을 방문해 2018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다.



충남도교육청, 252개 학교 텃밭 운영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0일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농어촌체험학습과 텃밭정원 운영 학교로 선정된 252개 학교 담당교사와 농어민 명예교사들이 협의회를 갖고 텃밭활동 체계를 통한 인성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용 분야 전통강호 건양사이버대학교 글로벌뷰티학과

2018 지방기능 경기대회 메달 획득



이·미용 분야 전통강호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목) 글로벌뷰티학과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열린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18 지방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 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상하며 이·미용 분야 강호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글로벌뷰티학과(학과장 임옥진) 학생으로 출전한 유승하(1위 금메달), 정다운(1위 금메달), 김은빈(2위 은메달), 김재근(3위 동메달) 학생이 선수 자격으로 출전, 선수 모두 메달을 거머쥐었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해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숙련기술개발 및 기능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대회로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메달과 상금이 주어지며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자격도 가지게 된다.

직종별 1, 2, 3위 입상자들은 오는 10월 5일~12일 전남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지역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직종별 우수 입상자는 최대 1,2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올해 8월 22일부터 27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2019년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대회에 출전한 1학년 유승하 선수는 "대학 교육을 통해 일과 대회출전, 그리고 학업을 병행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해 뷰티 분야 글로벌리더가 되는 게 올해의 목표"라고 말했다. 글로벌뷰티학과는 K-Beauty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로 전공 특성화를 통한 역량 강화와 미용 기술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임옥진 학과장은 "앞으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재 육성이며, 기능경기대회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발굴의 요람이 되도록 우리 학과에서는 재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온·오프라인 교육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뷰티학과는 이·미용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신·편입생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입시절차는 입학 홈페이지(go.kyu.ac.kr)에서 이뤄지며 대표전화 1899-3330 또는 042-600-6589로 자세한 입학 상담이 가능하다. 이경복기자

충남도립대, 장애인 정보·도서검색 돕는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가 장애인의 정보·도서검색을 위해 도서관에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를 비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검색 문서를 점자로 변환하여 인쇄하는 점자프린터, 저시력 장애인용 줌텍스트, 화면 낭독프로그램 센스리더 등이다. 설치 장소는 충남도립대 도서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경복기자

충남도립대는 이번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비치로 대학 내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청양군 내 거주하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장애인 등 정보열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재영 총장은 "앞으로도 도서관의 우수한 기자재와 공간을 확보·개방해 지역민들이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범기자

2018 유일원 벚꽃 축제 성대하게 열려

장애인·비장애인 어우러지는 흥겨운 한마당 장식



2018년 유일원 벚꽃축제가 오는 10일 홍성군 대내길 유일원 경내에서 김구이사장을 비롯하여 지역 장애인, 종교계, 각급 기관 단체 관계자, 시설의 환우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흥겨운 한마당을 장식했다. "아름다운 벚꽃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하는 어울림 행사로 치러지는 유일원 벚꽃 축제는 경내에 장관을 이루는 수백그루의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시설의 환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따뜻한 마음을 교감하는 사랑의 장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올해로써 36년째를 맞고 있는 벚꽃 축제가 흥성을 대표하는 매머드 축제가 되어 해마다 새로움을 더하고 있어 큰 반응을 얻고 있다. 김태선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요양기관·지자체 관계자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10일 옥천시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남부권(옥천·보은·영동)에 소재하는 옥천성모병원 원장부장 및 3개 군청 관계자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단 운영방향과 문제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준수와 특히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대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단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사전급여제한제도 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대전본부 이태영 보험급여부장은 "앞으로도 2회 정기적으로 요양기관 원부 부서장과 지자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 보험자인 공단과 이해 당사자간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기찬수 병무청장,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강조

신규 병역판정전담의사와 소통시간

기찬수 병무청장은 10일 서울 소재 병무연수원에서 신규로 임용된 병역판정전담의사 50여 명과 병역판정검사 업무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공과목별 전문의 자격을 가진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전국의 10개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과 중앙신체검사소에서 향후 3년간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기찬수 병무청장의 현장 방문은 신규로 임용된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향후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을 정립하고, 병역 이행의 첫 단계인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친절한 검사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와 병역면탈 의심자 색출 강화를 위한 업무능력 배양 등 한층 더 발전된 병역판정검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송병배기자



청양군수배 전국승마대회 개최 업무협약

청양군은 지난 9일 상황실에서 충남승마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11월 청양군수배 전국승마대회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충남승마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준배 청양군수 권한대행, 장석안 충남승마협회장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력 위원장, 박승준 교육 위원장, 이경우 청양승마협회장,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백세건강공원(청양읍)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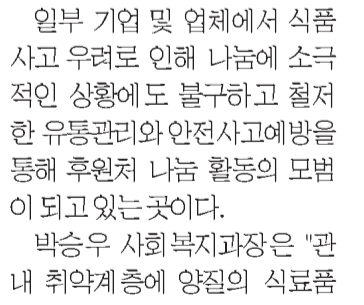
롯데마트 아산점, 식품나눔

모범기업으로 아산시 표창



롯데마트 아산점(점장 민경연)은 지난 3일, 아산시청에서 열린 월례모임에서 사회복지분야 유공으로 아산시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롯데마트 아산점은 아산신도시 배방읍 Y-Cit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아산시 기초푸드뱅크와 2016년 12월 'Food 행복나눔 후원 협약'을 맺고 매주 2회 정기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기업 및 업체에서 식품사고 우려로 인해 나눔에 소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유통관리와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후원처 나눔 활동의 모범이 되고 있는 곳이다. 박승우 사회복지과장은 "관내 취약계층에 양질의 식료품을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롯데마트 아산점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민경연 점장은 "앞으로도 식료품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원품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기고



조종목 소방청장

우리나라 속담에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이라는 말이 있다. 풀을 먹기 위해서 쥐구멍을 자주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일컫는 것이다. 속담에 등장하는 쥐구멍은 쥐에게는 생존의 통로겠지만 곡식을 지켜야 하는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쥐구멍을 막지 못하면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지은 수확물을 고스란히 쥐에게 바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빈틈없이 문을 닫는다고 해도 땅 속에서 구멍을 파고 들어오는 쥐를 막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요즘에는 전문적인 퇴치대행 회사도 있고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쥐약도 있지만 옛날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조상들이 짜낸 지혜가 밤

송이로 쥐구멍을 막는 것이었다. 비몽사몽 들지 않고 효과는 아주 만점인 방법이다. 밤송이에 달린 가시가 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밤송이 하나에는 약 3500여개의 뾰족한 가시가 아주 조밀하게 박혀 있다고 한다. 쥐가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무릅쓰고 그것을 밀어내고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곡식창고 근처의 쥐구멍을 모두 찾아 밤송이로 막는 것은 마치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과 많이 닮았다. 작은 것이라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전관리 수단이다.

일단 사고가 나면 큰 희생과 아픔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수고를 미리 하는데 소홀했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한번쯤 되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제천·밀양화재는 우리에게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너무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 현장대응 미숙이란 숙제를 남겼다. 부족한 인력과 장비만 탓하기 보단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춰내어 선진 화재 대응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월 5일 시작된 국가안전대

취구멍과 밤송이

진단이 오는 4월 13일까지 계속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의 커다란 아픔이 있었기에 어느 해보다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최근 정부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화재안전대책특별TF'를 꾸려 범정부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점검은 과거에 의례적으로 실시하던 점검과는 다르게 화재요인과 관련 있는 모든 차원의 변수를 찾아내기 위해 대규모의 점검요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난 세월 우리는 여러 차례의 대형화재를 겪으면서 수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지만 구조적인 취약요인의 해결까지는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눈감고 넘어간 부분도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모든 부분까지 찾아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숙의 중이다. 아울러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듣고

대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한양도성에서 연달아 발생한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142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했다. 그리고 화재예방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한 결과 획기적으로 화재를 감소시켰다.

화재를 비롯한 모든 안전은 꼼꼼한 예방점검과 그에 맞는 대책 수립과 실천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도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물론 생활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주택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는 시설관계자가 소방·전기·가스시설 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국민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에는 그 책무가 있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의 우리 모두의 동참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쥐구멍을 막았던 밤송이에 달린 3500여개의 뾰족한 가시에서 안전의 지혜를 한 수 배워본다.

기고



김정화 국립대선충원 원장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주위에 개나리며, 목련, 벚꽃들이 온통 자기 색깔을 뽐내고 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기리며

는 것을 보니 어느새 따뜻한 봄이 왔음을 느낀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국경일은 아마도 3.1절 일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민은 그 절반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1919년 4월 13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고, 흩어져 있던 각지의 임시정부부하로 통합하여 독립운동가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 뜻 깊은 날이다.

국립대선충원 전 직원들은 매일 첫째 날 업무시작 전 경건한 마음으로 현충탑에서 참배를 드리고 월례조회를 실시한다. 이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듯하다.

우리가 임시정부 수립 일을 기념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을 것이다.

혹독한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선조들을 잊지 않고 얼을 기리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더 나은 미래를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 이 또한 애국이 아닐까 한다.

내년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가오는 4월 13일... 1919년의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가슴 속에 나라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길 바래본다.

기고



표영국 충남서경경찰서 경무과장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하여 올해 9. 28일부터 점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4가지인데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동안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뒷 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자신의 사망 위험은 15~32%에 달하고, 앞좌석 승차자의 경우는 무려 75% 증가한다는 과학적인 근거 때문이다.

둘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

전년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67명에 달하고 음주운전 경험자는 전체 자전거 이용자의 12.1%에 달하며, 사고 시 38.4%가 머리 부상을 당하기 때문인데 세부 내용으로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 운전 시 범칙금 부과, 안전모 착용 의무화, 원동기가 커진 전기 자전거의 보도 통행금지 등이다.

셋째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2016년 기준 교통범칙금,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조 197억 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체납액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법규를 위반하고도 이를 교묘히 피해가는 법 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넷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교통안전교육이 신설된다. 이는 현재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실제 인지 기능은 75세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에서다.

이상 네 가지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시행에 앞서 전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하며 운전자들이라면 당연히 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도로교통법은 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 모두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때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사설

112 허위신고 범죄자 된다

폭발물 설치나 강박사건 등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하거나 접수요원을 성희롱하는 등 행위에 경찰이 강력히 대응한다니 절대 삼가야 한다.

경찰청은 허위·악성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이같은 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 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역시 적극 처벌한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경찰에 허위신고해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천837건에서 2014년 1천913건, 2015년 2천 734건, 2016년 3천556건, 2017년 4천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악성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례도 140건에 달한다.

2017년 한 해 허위신고로 무의미하게 투입된 경찰력은 인원 3만1천405명, 차량 9천487대였다. 허위신고 이유는 별다른 동기가 없는 사회 불만이 67.4%로 가장 많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신고가 50.7%로 절반을 차지했다.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장난 전화와 허위 신고를 일삼는 사람들은 112전화의 오남용 행위로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경찰이 이제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커진 김기식 원장 의혹, 정권차원 결단 필요한 시점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외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대외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을 받아 세 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게 그 발단이다. 그것만 해도 최근이 되기에 충분인데 '정상적 출장'이라는 그의 해명 중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나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의 해명을 들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우선 지난 2015년 KIEP 돈으로 10일간의 미국 유럽 출장에 동행한 20대 여성의 신분이 그의 해명과 다르다. 김 원장은 이 여성은 국책 연구기관을 총괄담당하는 '정책 비서'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즉각 한국당측에서 '정책 비서가 아닌 인턴'이라고 신분을 공개했다. 그제서야 정규 비서와 인턴 구분없이 일을 시켰다고 해명했지만 너무 근색하다. 국회의원의 공식 출장이라면서 사회경험도 없는 교육생을 수행비서로 데려간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KIEP 유럽사무소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에 로비성 출장이 아니라고 한 것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출장을 다녀온 뒤에는 국회 정무위 예산안 심사 때 '부대의견' 형식으로 다음 회계연도 반영을 약속했고 실제 그렇게 집행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소위 위원장으로서 절충안'이라고 드러났다. "새벽 비행기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타이탄 일정"이라던 중국 출장 출장 예산 비적이 유죄지 관공도 즐겼다고 한다.

물론 피감기관으로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는 게 그때는 관행일 수도 있다. 하지만 김 원장의 경우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 그는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수장이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감독의 명(命)이 시고 기대하는 금융개혁도 가능하다. 김 원장의 외유가 유독 논란이 되는 건 이런 까닭이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그의 이중성이다. 김영란법 통과를 주도하고, 피감기관의 로비성 외유를 질타하던 그가 뒤로는 정권대의 처신을 하고 다닌 게 아닌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적 출장'이니, '적법' 운운하면서 김 원장을 감싸는 것도 불쌍사나이다.

금융원장 임명 당시 자질문이 일기도 했지만 일견 김 원장에 대한 기대도 컸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낸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합리적이고 사심없는 금융개혁에 적임자일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그의 도덕성과 이중성으로 그 기대감은 다 날아가고 말았다. 정권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높은 지지에 올라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닌 듯하다.

충남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막바지 준비 박차

충남도가 2018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을 30여일 앞두고 대축전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 도교육청과 도경청, 도체육회, 아산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준비 및 종합상황실 운영 계획 보고, 기관 및 팀별 준비상황 설명, 향후 추진계획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그동안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장 선정, 상징물 확정, 개회식 연출계획 수립, 대축전 홍보, 홈페이지 구축, 안전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은 종전 식전, 공식, 식후 행사의 틀을 탈피, 참가 선수단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대진외와 레퍼 도끼 등 유망가수가 출연해 흥을 돋울 예정이다.

도는 또 선수단 환영, 경기장 안내, 문화·예술행사, 교통 대책, 소방안전, 의료 대책, 경기 운영 등 분야별로 막바지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장 등에 대한 안전매뉴얼 제작 및 경기장 안전 점검은 물론, 꽃길 조성 및 화장실 관리 등 대회 안전과 환경 정비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궁영 권한대행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 불편함 없이 기억에 남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충남의 문화·관광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품어라 행복충남, 뛰어라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5월 10일부터 4일 동안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도내 전역 58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43개 종목에 전국 17개 시·도 선수와 임원 2만여 명과 관람객 4만여 명 등 6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정한 기자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a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주성역사관 전래놀이 체험 풍성

홍주성역사관은 오는 21일부터 홍주읍성 일원에서 전래놀이 문화체험을 운영한다.

이번 문화체험프로그램은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살리고 가족 간의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홍주성역사관 사업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날리기, 공기놀이, 고누

놀이 등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전문 강사의 지도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홍주성역사관을 찾은 아동 및 청소년들은 가족 또는 또래와 어울려 마음껏 뛰어 놀면서 우리 전통문화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홍주성역

사관 및 홍주읍성 일원에서 진행된다. 단 5월 5일 어린이날의 경우 홍주읍성 내 각종 행사가 계획된 관계로 운영하지 않는다.

홍주성역사관 관계자는 "전래놀이 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교양강좌인 '홍주성역사관 박물관대학'도 곧 개강할 예정이다. 봄을 맞아 역사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홍주성역사관 (041-630-9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주성=김정한기자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즈니스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번호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상담문의 041-736-7200
학교 조형물 리모델링(보수, 도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kidp

KIBO
벤처기업인증

All children are artists. The problem is how to remain an artist once he grows up, Pablo Picasso

더 큰 생각을 하다!

스승 존경과 제자 사랑으로 넘치는 사제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공간 - 학교

학교에 설치되는 환경조형물은 아이들의 생각을 실내공간에서 벗어나 실외공간으로 확대하여 자연공간과의 친화성을 높이고 미적 감수성, 창조성, 정서성을 배울 수 있으며 보다 넓게 인간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아실현과 협동 봉사 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조형물의 설치는 폭 넓은 생각과 시각적 재미를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학습의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작 품 명 상 상(특허등록)

작품크기 1200*550*1900

작품특징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더 큰 생각으로 미래를 열어가자는 작품

30년 전통의 조형물 전문회사
www.hd-space.com

학교조형물 리모델링

I LOVE
Artschool
Environmental sculpture

국내 유일 학교조형물 전문회사 (주)현대공간조형이 사랑으로 만듭니다

- 30년 역사와 전통의 환경조형물 전문업체의 품격
- 새로운 공법, 특허 제작공법으로 경제적인 부담 최소화
- 최고의 작가, 최고의 작품의 예술성이 높은 조형물
-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조형물

- | | | | |
|--------|------------------|-----------|------|
| 도원초등학교 | 북청사, 지암초, 한림 | 연봉초등학교 | 사제상 |
| 간성초등학교 | 거제대남 | 월명초등학교 | 동남 |
| 도당초등학교 | 동남 | 속초삼다리 유치원 | 사제상 |
| 나해초등학교 | 사제상 | 석성초등학교 | 거제대남 |
| 석양초등학교 | 거제대남, 가학대남, 거제대남 | | |

조형물 / 조형미술 전문기업
(주)현대공간조형

조형물 전문상담
041.733.9558

www.hd-space.com